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배곶이마을 스톨이

1. 불란서 대리공사관저 / 밤

insert) 낮은 초가집들 사이로 유럽식 건물 하나가 불뚝 솟아있다. 건물의 창에서 새어나온 빛만이 깜깜한 거리를 밝힌다.

때가 잔뜩 긴 옷을 입은 옹기장수가 공사관 앞에서 서성인다. 현관에 기대어 놓은 지게에는 옹기들이 층층이 쌓여있다.

현관 유리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안을 들여다보는데... 유리에 하얗게 입김이 번지고... 창 안으로는 삼삼오오 모여 있는 양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화면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도 점차 커져간다.

/ 화려한 상들리에가 달린 고풍스러운 관저의 홀.

양복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각 국의 양인들이 시계를 보거나, 옷매무새를 가다듬는다.

양인들의 뒤로는, 조선의 도자기와 연적, 서화들로 장식된 끝없는 복도가 펼쳐져 있는데... 복도의 고미술품들을 감상하는 두 양인... 커피를 홀짝인다.

양인1 (영어) ...없는 게 없구만. 왜 조선이 텅텅 비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양인2 ...

아무런 대답이 없는 것이 이상한 듯 양인2를 쳐다보면... 양인2는 커피잔을 든 채로 얼어있다.

voice over 뽀랑시 (프랑스어) 아직 다 있진 않아.

양인1이 고개를 조금 더 돌리면...!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다가온 뽀랑시(남,38세)!

차가운 표정으로 빠르게 말을 이어간다.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콧수염, 그리고 작

은 체구가 어우러져 묘한 카리스마를 내뿜는다.

빨랑시 딱 2개가 빠져있지. ...그걸 한 달 내로 찾아오는 게 너희가 할 일이다.

싸늘한 분위기에 눌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을 때!

삐걱- 열리는 현관 여닫이문... 문 사이로 쥔신을 신은 발이 불쑥 들어온다.

모든 행동을 멈춘 홀 안의 남자들...! 시선은 모두 옹기장수로 향한다.

자신에게로 향한 주목이 어색한지 게 웃으며 들어오는 옹기장수, 빨랑시와 눈이 마주치자 꾸벅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다.

옹기장수 제가 늦은 건 아닌지 모르겠네유. / cut

/ 어두운 원목책상위에 지도가 펼쳐진다. 관아와 가구들이 상세하게 그려진 청주읍성의 지도이다. 불쑥 지도 귀퉁이에 그려진 산을 짚는, 옹기장수의 투박하고 거친 손!

v.o 옹기장수 아마 찾으시는 물건은 여기 있을 겁니다.

2. 어딘가의 산 / 밤

낙엽 밟는 소리와 나무 헤치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어둡고 가파른 산 속 어딘가로 장면이 바뀐다.

프랑스 도굴꾼 세 명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성큼성큼 걸어가고...

무리에서 떨어진 알랭은 숨을 헐떡이며 쫓아간다.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사방으로 뻗은 나뭇가지들이 으스스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고...

때마침 부엉이 울음소리가 산에 울려 퍼지자, 겁먹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는 도굴꾼들, 하나같이 거칠고 험상궂은 인상이다.

앞서서 길을 트는 두목에게 짜증이 섞인 말투로 소리치는 일행1.

일행1 (프랑스어) 여기 맞아?

두목의 표정은 더욱 일그러지고... 이제야 무리에 따라붙은 알랭(남,40세).

일행들과는 달리, 동그란 금테안경을 쓴 모습이 지적인 학자같기도 하고, 몽상가같기도 하다.

달빛에 비치자, 뻑뻑하게 들어선 까만 나무들이 기묘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알랭은 그 모습을 두려움에 가득 찼으면서도 경이로운 눈빛으로 감상한다.

v.o 용기장수 에이, 거기가 아녀유.

3. 프랑스 주한대리공사관저 / 밤

책상에 바짝 붙어 앉은 뿔랑시가 만년필로 산 속 어딘가를 가르키자, 얼굴을 찌푸리며 손을 내젓는 용기장수, 턱을 내밀어 방향을 지시한다.

용기장수 쪼-금 더 들어가야 해요.

만년필의 위치를 산꼭대기 쪽으로 옮겨 놓는 용기장수.

지도에 그려진 산꼭대기로... 점점 다가가는 화면...
누런 종이가 점점 뿌연 안개로 바뀌어간다.

4. 배곶마을 전경 / 새벽

insert) 험준한 산 속에 숨은 아주 조그만 마을... 새벽안개가 두텁게 쌓여있다.

안개가 서서히 걷히면서 드러나는 허리가 굽은 거대한 고목...
일사귀가 하나도 없이, 사방으로 가지들이 쪽쪽 뻗어있는 것이 기괴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마을입구에 자리한 고목 뒤로 배곶마을의 전경이 펼쳐지고...
용기종기 모여 있는 초가집 서 너 채와 다 스러져가는 기와집 한 채...
그리고 조그만 산사는 누군가 마을 뒷산에 얹혀 놓은 듯이 자리 잡았다.
마을주변의 손바닥만한 논과 밭은 텅텅 비어있다.

insert) 좌측- 지도를 접는 양인의 손. 양인이 얼굴을 찡그린 채, 마을 전경을 바라본다.

덜컹덜컹- 수레바퀴가 고르지 못한 흙길을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고...
양인의 옆으로 관군들이 끄는 수레들이 지나간다. 수레에는 쌀가마니가 수북하게 쌓여있다.

바람소리인지, 어느 아낙네의 곡성소리인지가 마을전체를 휘감고...
마을에서 떠나가는 마지막 수레는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지막 수레의 뒷모습을 가까이서 보면...
수레 밖으로 빠죽- 나와 있는 시체의 시퍼런 발!!!
수레의 덜컹거림에 맞춰 흔들린다.

5. 혈랭이(관군)의 집 / 아침

대문이라고 하기에 초라한 나무문 위에 폴 바른 하얀 종이를 붙이는 관복을 입은 소년, 혈랭이(남,17세)다. 목탄을 들고 종이 앞에 서서 ‘뭐라고 쓸까...’고심하다가... 스마일표시 두 개를 나란히 그린다. (☺ ☺)

/ 혈랭이네 대문을 올려다보고 있는 풍뎡이(남,7세). 방한모인 풍차風遮를 꼭 눌러써서 인지 양 볼이 더욱 빨갛고 통통해 보인다. 특유의 멍한 표정으로 혈랭이가 그린 그림을 보는데... 스마일 두 개 중에, 한 개 위에 X표시가 쳐져있다.

풍뎡이 에고... 할마시...

애뜻한 표정으로 손을 모아 함장을 한다.

6. 최창득의 집 / 아침

insert) 거의 다 무너져 내린 기와집 담장을 휘감은 담쟁이덩굴... 담장 너머로 보일락 말락하는 풍뎡이의 모자.

/ 안방 안에는 곱게 머리를 빗은 돈할매(여,60대)가 누워있다. 허공을 바라보는 눈에 초점이 없다. 물수건으로 돈할매의 얼굴과 손을 정성스레 씻기는 최창득(남,35세). 등이 곧고 입술이 얇아 현명해 보이는 인상이다.

돈할매는 기분이 좋은지 쭈글쭈글한 얼굴에 미소가 살짝 어린다.

마루에는 최창득의 딸, 현이(여,11세)가 켠 두 눈을 데룩데룩 굴리며 앉아있다. 삐쩍 마른 것이 한눈에도 기력이 없어 보인다.

insert) 말라붙은 담쟁이덩굴의 갈색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린다.

손을 더듬어 담장의 기와를 드는 풍뎡이... 자그만 흰 봉투를 조심스레 올려놓고 그 위에 기와를 덮어놓는데!! 턱- 풍뎡이의 손을 잡는 누군가의 손!

풍뎡이 놀란 표정으로 서서히 고개를 올리면...

담장너머로 쭈글쭈글한 돈할매가 씨익- 웃고 있다. /

/ 고쟁이 속을 뒤적이는 돈할매, 불쑥! 풍뎡이 얼굴 앞으로 말라비틀어진 조그만 고구마 한 개를 내민다. 풍뎡이... 고구마를 감격에 젖은 눈으로 바라보고...

insert) 빼걱- 안방문을 열고 들어온 돈할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이부자리 속에 고이 누우신다.

7. 마을 어딘가 / 정오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에 쪼글쪼글한 고구마 하나가 던져진다.
누가 보지는 않을까 이리저리 살피며 불쏘시개로 불을 계속 지피는 풍뎡이의 모습.

insert) 누군가의 시점으로 풍뎡이의 모습이 보인다.

기대감에 부푼 풍뎡이가 익어가는 고구마를 보며 쪼그려 앉아있다.
순간!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표정이 굳어 고개를 올리는데...
노란머리의 양인이 풍뎡이를 내려다보고 있다!
늘 있는 일이라는 듯 다시 고구마 굽기에 몰입하는 풍뎡이.
양인은 “헤이,헤이” 풍뎡이를 부르지만 풍뎡이는 듣지도 않고 고구마를 요리조리 굴러가며 성심성의껏 굽는다.

풍뎡이 나눠먹자는 거여, 뭐여...

나뭇가지가 고구마 속으로 푸욱- 파고 들어간다. 나뭇가지에 꽂힌 고구마를 꺼내는 풍뎡이... 제 품속을 뒤적거리 오래된 책 한권을 꺼낸다.
오래된 책을 보자 눈이 커지는 양인!!!!

양인 웨잇, 웨얼디쥬파인드잇? (잠깐, 너 그거 어디서 났어?)

심각한 양인의 표정! 풍뎡이, 뭘 말인가 양인을 멀뚱멀뚱 바라보다 고서의 첫 장을 찢는다.

양인 (소리치며) 오, 노노노노!

...충격을 먹은 양인! 풍뎡이는 개의치 않고 찢은 한 장 위에 구운 고구마를 툭- 올려놓는다. 꾸깃꾸깃 고구마를 감싸는 종이...
지퍼놓은 빨간 불씨가 타닥타닥 타들어간다.

voice over 순식 쿵쿵- 냄새가 이상한데?

8. 마을우물 / 오후

(우물 안 개구리가 보는 시점처럼) 동그란 우물의 바깥부분은 가려진채, 동그란 하늘만이 보인다. 두둥실 흰 구름이 지나가고...

우물 안을 들여다보는 순식(남,30대)과 돌맹(남,30대)의 얼굴이 쪽 나온다.

순식이는 눈 밑에 점이 있어 더욱 순박해 보이는 인상이고, 돌맹이는 눈썹이 짙고 미간에 주름이 잡혀있어 급한 성미인 것처럼 보인다.

돌맹 예잇, 씨부릴. 가뜩이나 배 채울 것도 없는데 물마저 이러면 어떡하.

순식 그러게...

부아가 나는지, 확- 몸을 트는 돌맹이... 힘없이 걸어가는 누런 개 한 마리와 눈이 마주쳤다. 흠칫 놀라는 누런 개.... 둘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멍칫거리다 냅다 뛰기 시작하는 누런 개.

돌맹 에라이...!

돌맹은 아쉬운지 입맛을 다시고... 순식이는 아직도 우물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순식 그냥 자셔... 뭐 죽기야 하겠어?

순식이가 나무뚜껑을 덜그럭거리며 닫으면... 우물 안에서 본 하늘이 조금씩 가려진다. 뚜껑을 다 닫으면, 화면도 깜깜해진다.

9. 산사 / 저녁

수목화처럼 펼쳐진 배곶마을의 뒷산에 자리한 산사... 작지만 소박한 멋이 있는 곳이다.

산사의 마당 끝에는 아찔한 낭떠러지가 있는데다가, 험한 산 속에 위낙 작은 모양새로 자리 잡고 있어 마치 숨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마당 끝 절벽에서 마을을 굽어보는 스님 셋. 여기저기 기운 흔적이 보이는 잿빛 승복을 입었다.

바람에 휘날리는 스님들의 누더기 승복, 파랗... 고담시를 지키는 배트맨처럼 마을을 굽

어보고 계신다.

insert) 붉게 타들어가는 노을이 하늘에 번진다. 산사에서 내려다본 마을의 모습. 행하고... 초라하다.

이 진지한 관경과는 어울리지 않게... 꼬르륵... 꼬르륵... 배끓는 소리가 진동을 한다.

큰스님 어흠...

헛기침을 하는 큰스님(남,60대)... 달마대사를 닮은 용모에 거대한 풍채를 지니셨지만... 입을 열면 췌소리가 난다.

항상 웃는 얼굴인 작은 스님2(남,30대)가 사람 좋게 이야기를 건네고...

작은스님2 스님, 저녁공양 시간도 끝났으니 이제 들어가시지요.

작은스님1 에라이...오늘도 바람 한 사발 잘 먹었네.

작은 스님1(남,40대)이 마음에 담아둔 말은 꼭 해야 한다는 투로, 비꼬며 말한다. 유난히 작은 눈과 두툼한 입술을 지녔다.

insert) 마을 언덕에서 누런 개 한 마리와 검은 개 한 마리가 서로에게 기대어 있다.

voice over 풍뎡이 길송아~~~ 도망가~~~!!!!

풍뎡이의 고래고래 내지르는 소리 때문에 이 배고프고도 조용한 풍경이 깨진다.

전속력으로 산사에 올라오는 풍뎡이...

헉헉거리며 뛰어오는 풍뎡이 뒤로, 양인이 성큼성큼 뒤따라온다. 앞 췌에서 고구마 굽는 풍뎡이를 지켜보던 양인이다!

별걱- 해우소 문을 열고 나오는 한 사람! 뽕뽕하게 생긴 단발머리 여자아이, 길송이(여,11세)이다. 척- 양인 앞에 당당히 서는 길송이. 풍뎡이는 길송이 뒤에 붙어, “도망가래두... 괜찮아?”, “망할 양귀신! 꺼져라.” 등등 조그맣게 지껄이고 있다.

양인은 길송이의 얼굴을 유심히 관찰한다.

양인 웨어 이즈유얼시스터?(언니 어딴냐)

스님들도 긴장하고, 풍뎡이도 긴장한 가운데... 어깨를 으쓱하는 서양식 제스처를 취하며 입을 여는 길송이.

길송 (혀에 버터 바른 발음) 아둔 노우, 웨얼쉬이즈.(언니가 어딴는지 난 몰라)

길송이의 끝내주는 영어발음에 흠칫 놀라는 양인. 길송이가 잘난 체 하는 표정으로 양인을 위아래로 훑어본다.

10. 서고 / 밤

insert) 까만 밤하늘에 총총이 떠있는 별... 별똥별 하나가 포물선을 그리며 배궂이마을에 떨어진다.

수풀이 우거진 숲 속에 자리한 서고... 군복을 입은 혈랭이가 꾸벅꾸벅 졸고 있다. 부스럭- 소리에 흠칫 경기를 일으키는 혈랭이... 하지만 다시 또 꾸벅꾸벅... 누군가가 시꺼먼 풀숲에서 나오고... 덤석! 하얀 손이 혈랭이의 팔언저리를 잡는다!!

줄려서 안 떠지는 눈을 간신히 뜨는 혈랭이...
눈 앞에 보이는 양인의 얼굴, 반갑게 웃으며 아는 체를 한다.

눈만 꿈벅꿈벅하던 혈랭이가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양인이 주머니에서 동전 몇 닢을 꺼내어 보내주자,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는 혈랭이!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간다. 찰랑- 열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굳게 잠가놓았던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낸다.
삐걱- 서고의 나무문이 열린다.

11. 배궂이마을 사람들의 각 집 / 밤

insert) 흰한 보름달이 휘영청 밤하늘에 떠있다.

혈랭이의 집
어두운 부엌... 싸르르- 쌀알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다.
하얀 쌀알이 달빛에 반사되어 반짝반짝 빛나며 바가지에 떨어진다.

최창득의 집
사랑채에서 푹푹하게 누워 자던 최창득이 슬며시 눈을 뜬다.

순식이네 집

자던 순식이가 코를 벌렁벌렁 거리는데... 눈을 떠서 옆으로 보면...!
순식처 역시 자면서도 코를 벌름거리고 있다.

혈랭이의 집

쌀을 씻는 혈랭이의 손. 물에 닿은 손이 찰방거리는 소리와, 물 버리는 소리가 들리고...

돌맹이의 집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돌맹이.
등을 돌리고 자는 돌맹처의 엉덩이를 발로 툭툭 차서 깨운다.

혈랭이의 집

보글보글 쌀알이 끓기 시작한다.

산사

공양간 뒤주 안에서 자고 있던 풍뎡이가, 뒤주 뚜껑을 열고 벌떡 일어난다.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큰스님이 주무시는 방안에 들어가는데...
큰스님의 이불 속으로 파고드는 풍뎡이...

풍뎡이 스님... 어디서 먹을 거 냄새나.

큰스님, 몸을 뒤척이며... 풍뎡이가 차지한 이불을 슬쩍 뺏어온다.

큰스님 (씻소리) 잘 못 맡은 거 아녀?

큰스님이 말을 마치자마자 벌컥 열리는 방문. 작은스님1이다!

작은스님1 (다급하게) 먹을 거 냄새가 납니다!!

혈랭이의 집

가마솥 뚜껑을 여는 혈랭이... 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온다.

혈랭이네로 가는 길

흙길을 조금하계 걸어가는 짙신 발들. 쿵쿵거리며 냄새를 맡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함께 하는 발걸음은 점점 늘어난다.

12. 혈랭이네 안 방 / 밤

등근 밥공기에 수북하게 담긴 쌀밥을 턱- 개다리소반 위에 올려놓는 혈랭이.
스마일 표시에 X자 쳐놓은 그림을 안방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 앞에 엎드려 훌쩍훌쩍
울고 있는 혈랭이... 나름대로 제사상을 차려놓았다.

혈랭이 엄니... 엄니가 생전에...(꺼이꺼이) 그렇게 드시고 싶어했던 쌀밥이유...

엎드려 우는 혈랭이의 코에서 끈적한 콧물이 흘러나온다. 쿵- 하고 콧물을 들이키는
데...

밥냄새가 같이 올라왔는지... 침을 꿀꺽 삼킨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밥공기를 바라보는 혈랭이...
소반 앞으로 조심스레 기어가서... 수저를 잡는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잡은 수저를 쌀밥에 푹 찔러넣고는...
다시 감격의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혈랭이...
한 술 크게 떠서... 자신의 입으로 찬찬히 가져오는데...

벌컥!!!! 혈랭이네 안방 문이 열린다!!!

엎드린 상태로, 밥 한 술 뜬 수저를 들고 굳어버린 혈랭이가 문 쪽을 보면!!!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마을사람들의 얼굴!!!
사람이라기보다 굶주린 짐승 같은 괴기스런 분위기를 풍긴다.
달빛이 반사되어, 눈에서 안광이 번쩍-! 하고 일어난다.
툭! 화면이 암전되면서 흘러내리듯 써지는 제목 타이틀...
insert)

배골이마을 스톨이

13. 최창득네 마당 / 오전

insert) 최창득네 대문에 ‘초상初喪’이라고 쓴 하얀 종이가 붙어있다.

마루에 앉아 귀를 후비고 있는 이방(남,50대). 좁은 어깨에 축 쳐진 볼 살이 심술 맞아
보인다.

이방 ...깡깡하고만!

할 수 없다는 듯 손에 든 장부를 탁- 덮고는...주위를 둘러보는 이방. 이방을 따라온 관
군들은 딱히 할 일이 없는지 최창득네 마당에 주저 앉아있다.

행하게 비어있는 가마솥... 벧짚만 쌓인 마을 곳간... 아낙네 얼굴에 핀 버짐...
깊게 한 숨을 내쉬는 이방. 정말 가져갈게 없어서 발길을 돌리려는데!
순식처와 눈이 마주친다!
순식처 얼굴에 하얗게 퍼진 버짐... 푸르죽죽한 입술...

이방 ...정 널 게 없으면 말야...

뚥어져라 이방이 순식처를 살펴볼수록 순식처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간다.
순식이를 바라보는 순식처, 순식이가 고개를 떨군다... /

/ 다시 장부를 펴서 ‘환곡부채’란에서 배끓이마을을 지우는 이방...

이방 어디로 가야혀?

이방은 신이 난 듯, 휘적휘적 마당을 가로질러간다.

마당에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진다.

14. 산사_ 큰스님 처소 / 오후

insert) 자기주전자에 담긴 따뜻한 물에 차 잎이 떨어진다. 차 뚜껑을 닫고... 찻잔에 차
를 따르는 모습.

단출한 가구만이 놓여있는 큰스님 처소에 모여 앉아있는 마을의 남정네들.

스님2가 각 사람 앞에 가만히 찻잔을 내려놓는다.

찻잔이 놓이자마자, 원-샷해 버리는 돌맹이.

헐랭이도 배고픈 듯, 뜨거운 차를 그냥 마셔버린다. 찻잔에 붙어있는 우려낸 차 잎을
잘근잘근 씹기까지 한다.

차에 손을 대지 않는 순식이...

큰스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는 고개를 가로짓는다.

큰스님 다시 한 번들 생각해 보시지요.

모두들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돌맹이가 “에이, 땡중 같으니라고... 그럴 줄 알았어.”라고 읊조리자, 스님1이 눈을 부라리며 돌맹이를 찌러본다.
돌맹이가 희망을 찾듯이 얼른 최창득을 쳐다보면...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다.

최창득 안되네.

최창득의 단호한 어투에 풀이 죽은 사람들... 조그맣게 탄식소리가 터져 나온다.

돌맹 왜 안 되는데유?... (멈칫) 아...! 좀 궁금해서...

최창득 그건 도적질이야.

돌맹 아니, 성님. 도적질인 게 뭘 상관이요? 뭘 짓인들 못할까...

순식... 말없이 찻잔을 보고...

최창득 아무리...그래도...지켜야 할 게 있는 거.

눈빛이 달라지는 마을사람들... 반발심이 어린다.

큰스님과 스님2만 고개를 끄덕이고...

최창득 ...왜 혈랭이가 서고를 지키겠는가?

남정네들이 진짜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고...

혈랭이는 고민스러워하더니 입을 연다.

혈랭이 ...저...제가 특별히 지킨다거나 하진 않아요. 그냥 서 있으래니깐 서 있는 거지...

끄덕거리는 마을사람들과... 스님1의 ‘저런 바보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

최창득 혈랭인 관군이여. 그러니 관아서 일하는 거지?

또 여기저기서 탄 말이 터져 나온다.

“서고서 일하는 거 아녀?..”, “무식한 것. 좀 들어봐.”...

최창득 흠흠... 관아에서 사람을 보내 지키게 하는 건, 그건 나랏님 거니깐 잘 지키라고 그러는 것이지. 그런데 거기 있는 걸 건드리면, 나랏님 걸 흠친 꼴이란 말여!

일동... 이제야 이해했다는 듯 끄덕인다. “아...그거 알았는데...” 돌맹이가 아쉽다는 혼잣말을 내뱉고... 말이 없던 순식이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질문을 툭- 던진다.

순식 (걱정하며) 그럼 혈맹이는 어찌 되는 거유?

최창득

돌맹 (대수롭지 않게) 죽어야지 뭐.

찾이를 썩다가 울상이 된 혈맹이...

주위를 둘러보면 헛기침을 하며, 혈맹이를 외면하는 사람들...

혈맹이 더욱 억울한 표정이 되어 소리친다.

혈맹이 다들 같이 먹었잖아유!!!! /cut.

insert) 최창득네 안방에 누워있는 돈할매의 볼에 붙어있는 밥풀 하나. 씨익- 웃는 돈할매.

15. 돌맹네 집 / 밤

insert) 배곶이마을에 내리 붓는 빗줄기... 천둥소리인지 배곶는 소리인지, 고목-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

팡-하고 퍼지는 우산! 빗물이 우산을 따라 또르르- 굴러가고...

우산을 비추던 화면이 점점 내려가면... 우산대가 보이고... 그 다음, 돌맹이의 얼굴!!!

머리에 쓰는 우산인 갈모를 쓰고 있는 돌맹이.

돌맹이를 중심으로, 똑같이 갈모를 쓴 돌맹처... 순식이... 순식처가 뒤쪽에 나란히 서있다!

insert) 서고 앞

우의를 입고 초조하게 서있는 혈맹이의 모습.

처마 밑에서 추운 강아지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다.

16. 최창득 네 _ 사랑채 / 밤

깜깜한 사랑채... 창으로 빗소리가 새어 들어온다.

번쩍- 눈을 뜨는 최창득! 다시 잠이 들으려는지 몸을 뒤척이는데...

사람들의 소곤거리는 소리와 발자국 소리가 들려온다.

최창득 아니, 왜케 말을 안 들어...

이부자리를 박차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최창득...
밖에선 콧바람- 천둥이 몰아친다.

17. 서고 앞 / 밤

insert) 진흙물이 쿵쿵 쿵쿵 흘러내려오는 산 길.

아랑곳하지 않고 저벅저벅 걸어 올라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그 뒤를 긴박하게 쫓는 최창득의 나막신!

(최창득 시점) 갈모를 쓰고 산을 오르는 사람들 무리의 뒷모습이 보인다.

서고 앞에 도착한 최창득... 이상한 듯 주위를 둘러보지만 아무도 없다.
빗소리만 하염없이 들리고... 헐랭이 마저 없는 서고...

서고의 문으로 가서, 자물쇠를 손에 쥐어보는데...

최창득 이것들! 벌써 가져간 거 아녀?

급하게 발걸음을 돌려 마을로 내려가려는데...
서고 옆 풀숲에서 인기척이 들려온다.
풀을 헤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가는데...

풀숲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 갈모를 써서 더욱 해괴한 광경이다.
손으로 땅을 파헤치고 있는데...
최창득, 비 때문에 시야가 가려지는 듯, 얼굴에 달라붙는 빗물을 닦아낸다.
사람들의 손 틈으로 보이는 무언가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점점 공포에 질려가는 최창득의 얼굴!!!

번쩍- 번개가 치고!!! 사람들 손 사이로 드러난 현이의 얼굴!!!!
묻어놓은 현이의 주검이 땅 밖으로 나와 있다.

insert) 콧바람-!!! 온 산을 뒤흔드는 번개와 천둥소리!

18. 산 속 / 밤

“으아아아악-!!!!”

알랭의 비명소리가 산을 울린다.

앞서 걷던 프랑스 도굴꾼들이 알랭을 뒤돌아본다. 한 걸 같이 한심하다는 표정들...

알랭 으어어...얼마나 가야해?

다들 대답이 없다. 무성하게 자란 풀을 나뭇가지로 거칠게 제길 뿐...

짜증난다는 듯, 두목에게 소리치는 일행.

일행1 병신같이. 재랑 꼭 같이 가야해?

이제야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알랭... 두목도 한참동안 대답이 없다.

두목 그래도...그 책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재 뿐이라고. 알랭! 조금만 참아... 거의 다 와... (알랭을 뒤돌아보면) ...!

사라진 알랭!!!

...구덩이(현이의 무덤)에 빠졌다.

한심하다는 듯 두목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풀을 제끼며 앞으로 나아가는 프랑스 도굴꾼 일행...

19. 산사 _큰스님 처소 / 새벽

방에 털썩 주저앉는 최창득... 비에 젖은 옷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닥에 점점 퍼져간다.

voice over 스님1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을 거예요.

경망스럽게 말을 하는 스님1을 찰러보는 큰스님과 스님2.

스님1, 팬시리 스님2에게 눈을 부라리는데...

멍하게 찻잔을 입에 대는 최창득... 스님들도 어쩔 줄 모르는 기색이 역력하다.

지긋이 최창득을 바라보는 큰스님...

voice over 스님1 이게... 다 배고프니깐... 배고픈 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큰스님 너머의 벽으로 점점 다가가는 화면!

insert) 벽에 귀를 바짝 대고 있는 헐랭이와 순식이! 순식은 금방이라도 울 듯한 표정이다.

20. 서고 앞 / 낮

아래에서 올려다본 스님1의 얼굴, 목에는 핏대가 서있다.

스님1 (과장스럽게) 그렇게 허서, 따악 한 권만! (목소리를 낮추고) 나랏님 모르게, ...하기로 결정했네.

서고 앞의 조그만 마당...

스님1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바닥에 첩퍼덕 앉아있다. 뭐가 맘에 안 드는지 돌맹이의 표정은 뚱하다.

돌맹이 (불만에 어려) 딱 한권만 해서 누구 코에 붙인대유?

마을사람들도 술렁이기 시작하고...

반 썸 열린 서고문을 붙잡고 선 헐랭이가 난감해하며, 스님1과 마을 사람들을 쳐다본다.

헐랭이 아, 몇 권 가지고 나와유?

마을 사람들 뒤편에 조용히 서있던 큰스님이 조용히 손가락으로 '1(하나)'을 표시한다.

헐랭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고 안으로 들어가고...

상한 민심을 달래듯 스님1이 말을 이어나가는데...

작은 스님1 몇 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여. 한권을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한 거지! 쫓. 너가 장사를 알어?

뽀족해진 돌맹이가 툄툄거리며, 말대꾸를 한다.

돌맹 아, 그럼 어떻게 팔 건데유?

돌맹의 옆에 순식이가 그만하라는 의미로 돌맹이의 옆구리를 쿡 찌르곤, 꾸벅 허리를 굽혀 대신 사과한다.

스님1, 돌맹이를 한 대 쥐어박으려다... 참고 손을 모아 합장을 한다.

21. 서고 앞 / 저녁

insert) 서고로 올라오는 숲 길의 나무들이 흔들린다.

풍뎡이가 양인들을 데리고 올라오는데... 길이 어두운지 자꾸만 고꾸라지고 자빠지는 양인들...

/서고에 도착한 양인들이 감격에 겨워서 서고를 둘러본다.

공손히 배꼽인사를 하는 순식처와 돌맹처. 인사를 마치고는 손으로 ‘돈’ 표시를 해 보인다.

voice over 스님1 첫 번째, 일단 입장권! 돈 있는 놈을 선별해 받아야지...

양인들, 알았다는 의미로 웃웃에서 돈을 꺼내자... 활짝 웃으며 돈을 받는 돌맹처. 허리춤에서 미리 만들어놓은 입장권을 꺼내어 주는 순식처!

voice over 스님1 두 번째, 경매!

voice over 돌맹 ... 경매가 뭐유?

voice over 스님1 아놔... 수준이 맞아야 같이 장사를 하던가 하지.

voice over 돌맹 ... 넌 뭘지 아냐?

voice over 순식 가만히 있음 알게 될 걸, 왜 물어보고 그랴...

서고 앞에 마련된 통나무의자에 앉아있는 양인들...

그 앞에 선 길송이가 고서 한 권을 들고, 영어로 양인들에게 설명을 한다.

길송이 디스 북 이즈 베리...

길송이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서로 경쟁하듯이 양인들은 서로 눈치를 본다.

voice over 돌맹 아이고! 길송이... 만주 다녀온 보람이 있구먼.

길송이의 설명이 끝나자, 책을 건네받고 양인들 앞에서는 스님1.

voice over 스님1 자, 이제 내 차례여!

스님1이 장풍을 쏠듯이 기를 모으자, 양인들 모두가 집중을 하고...

스님1 (찌렁찌렁하게)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신호) 1번에 닷 냥, 1번에 닷 냥, 열 냥 안계십니까? 3번에 열 냥, 3번에 열 냥, 열다섯 냥 안계십니까?

스님1의 수신호를 보면서, 경매에 잘 참여하는 양인들... 많이 해본 솜씨들로 스님1의 말에 맞춰 손을 번쩍번쩍 든다.

스님1의 속사포 경매진행을 뒤에서 지켜보며 혀를 내두른 마을 사람들...

돌맹처 참... 스님은 답답했겠다!

웃음을 참는 마을 사람들...

경매를 지켜보던 큰 스님의 손을 잡고 있던 풍뎡이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풀숲으로 고개를 휙 돌린다!!!

풍뎡이 (손짓) 저기 또 왔슈.

insert) 풀숲 사이에서 깜짝 놀란 도굴꾼 두목의 모습!!!

/ 풀숲을 향해 공손하게 배꼽인사를 하는 돌맹처와 순식처... 또 '돈'표시를 해보이는 데...

풀숲에서 쭈뼛대며 나오는 프랑스 도굴꾼 두목!!!

/ 난감한 길송이의 표정.

길송 쏘...하우머치 두유해브? (그래서, 얼마있어?)

두목이 머리를 긁적이다가... 풀숲 사이를 슬쩍 쳐다보는데!

/ 풀숲에 숨어있는 나머지 도굴꾼 일행.

일행1 무기도 갖고 있는데?

insert) 경매가 진행되는 앞마당에서... 저마다 농기구들을 들고 어슬렁대고 있는 남정네들.

일행2 일단 경매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지 뭐.

알랭 ...도굴이라는 게 원래 이런 거야?

자존심이 상한 듯, 알랭을 찌려보는 일행들... /

/ 뒤돌아가는 두목의 뒷모습... 저 멀리 노을이 지고 있다.

돌맹처 아니, 양인이 입장권 살 돈도 없단 말여? 참 나... 저렇게 돈 없는 양인은 또
침 봤네.

순식처 (말리며) 재도 다 들어유...

/ 두목, 표정이 싸늘하게 굳은 표정으로 읊조린다.

두목 그냥 우리 식대로 한다.

끄덕이는 프랑스 도굴꾼 일행.../ F.O

22. 서고 앞 / 밤

경매가 끝난 후 소란스러움이 가시고, 경매에 쓰였던 종이들이 흙바닥 위에 나뒹군다.
통나무 의자를 번쩍 들어 거둬가는 아낙네들...

작은스님2가 벌은 돈을 나눠주자, 꿈인가.. 생신가.. 어색하게 웃어보이는 남정네들.

마을에서부터 뛰어올라온 풍뎡이가 숨을 헐떡거리며, 사람들 앞에 멈춰섰다.
빨강게 터진 볼에 밥풀 한 개가 붙어있다.

풍뎡 아자씨~~아자씨이!!!!...헉헉...국...밥들 자시러...아이구야...내려오시래요...

돈을 받았을 때보다 더욱 신이 난 표정으로 내려가는 남정네들.
그 뒤로 짐을 든 여자들이 따라 내려간다.

남자들은 결눈질로 자신의 마누라가 잘 따라오는지 뒤돌아보긴 하지만 짐은 들어주지
않고...

뒤를 돌아보다 순식이와 눈이 딱 마주친 돌맹이! 빨쭈한 표정으로 다시 서고를 지키고
서있는 혈랭이에게 소리친다.

돌맹 야, 혈랭아! 먹고 일 혀, 임마! (혈랭이를 가르키며, 사람들에게) 차도 수고했는
데 챙겨야지.

끄덕이는 사람들, 순식이는 다 안다는 표정으로 돌맹이를 바라보고...

서고 문 앞에 하릴없이 서있던 혈랭이가 반색하며, 서고를 잠가놓은 자물쇠를 확인 차 한번 들었다가 놓는다.

서고의 나무 문틈 사이로 안에서 움직이는 검은 형체들이 보인다.

23. 서고 안 / 밤~새벽

서고의 안은 어둡지만, 창으로 달빛이 들어와 묘한 느낌을 준다.

나란히 서있는 책장...그리고 거기에 나란히 꽂혀있는 고서들..

달빛을 받은 먼지들이 유영하듯 고서 주변을 떠다니고 있어 신비로운 느낌을 준다.

그 분위기에 압도되어 굳어있는 알랭의 모습.

서고의 창문으로는 바깥풍경이 사각의 프레임에 맞춘 사진처럼 보여지고...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내리막길로, “아, 성님들! 같이 가유~~” 라고 소리치며 부랴부랴 내려가는 혈랭이의 뒷모습.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프랑스 도굴꾼들.
두목이 비장하게 입을 뗀다.

두목 (창을 바라보며) ...알랭, 여기부턴 너 뭇이야. 저 사람이 오기 전에 얼른 찾아서...(뒤를 돌아보곤) ...!

이미 알랭은 호들갑스럽게 서고 여기저기를 누비며 감격스럽다는 듯 책을 만지고, 꺼안고, 냄새 맡고... 맛보고 있다(!).

인상을 팍 구기는 일행... 진절머리 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다.

일행1 난 저 인간을 영 믿을 수가 없어.

일행2 그래도 여기서, 그걸 찾을 수 있는 애는 재뿐이야. 지금으로선... 믿어야만 해.

날카로운 눈으로, 알랭의 행동을 살피는 두목, 알랭이 책을 꺼낼 때마다 움찔움찔한다.

알랭 (감격스럽다는 듯) 오, 여기 있는 모든 게 다 보물이라구. 너희들은 상상도 못 할 거야. 이게 얼마나... 얼마나... (멈춰서서 책 하나를 짚는다) ...가치 있는지... (책을 펴고선 더 빠져든다)

두목 (짜증나서) 그래서 다 가져갈 순 없잖아. 주문받은 거나 얼른 찾아.

대답도 없이 책을 들여다보는 알랭...

대답이 없자, 알랭이 있는 곳으로 한걸음...한걸음... 걸어가는 두목.

두목 ...알랭? ...찾은 거야?

탁- 책을 덮는 알랭. 주위를 재빠르게 살피며 자신의 옷옷에 고서 하나를 넣는다.

그 모습을 책장 사이로 엿본 두목!

두목 ...찾은 거 아니야?

알랭 (태연한 척 하며) 아니, 아직이야. ...어찌지? 워낙 책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거 같은데?

두목 (의심을 담아)...그래?

두목의 뒷모습이 비취지면, 절구공이 하나를 등 뒤에 감춰진 모습이 보인다!!!

위기감이 고조되는 음악이 흐르고 컷./

/ 도굴꾼장 다 끌어담아. 보물천지라는데, 한권만 가져가긴 아쉽잖아.

도굴꾼들이 씩씩거리며 서고 안에 있는 책들을 커다란 가방에 마구 끌어 담고 있다.

두목은 알랭의 옷옷을 뒤져서 알랭이 숨겼던 책을 꺼낸다.

알랭에게 튜! 침을 뱉고..."우리가 속을 줄 알아?"

일행1의 가방이 뽕뽕하게 팍 차자, 가방의 밑바닥에 손을 쭈서 넣어 어떤 책 한 권을 꺼내는데... 그 책은... 바로 성경책! 작업을 하던 일행2의 비웃는 듯한 웃음.

일행1 할머니가... 항상 가지고 다니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 직업이잖아.

일행2 (일행1의 성경책을 뺏어들며) 이런 책은 저 병신한테나 어울리지.

툭- 성경책이 알랭 쪽에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암전된다./

/

나른한 표정의 알랭이가 열려있는 문을 보며 머리를 긁적인다.

삐걱- 열리는 서고의 문.

알랭이!!!.....(먹은 게 소화되는) 꺼억...

팅팅 빈 서고의 책장..바닥에 떨어진 책 몇 권으로 시선을 이어가면....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알랭!
머리에서 흘러나온 검붉은 피가 바닥에 퍼져있다.

24. 배푼이마을 뒷산 속 어딘가 /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산 속의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인다.
/바스락바스락- 마른 낙엽이 빠르게 밟혀지는 소리...
/어딘가로 내달리는 구두를 신은 발걸음들...
/헉헉거리는 숨소리와 화면 가득 매운 하얀 입김들...
/곡괱이와 낫을 든 투박한 손...
/빠르게 산을 타는 헤어진 짚신들... 구두들과 짚신들의 거리감이 점점 좁혀지고!!!!
“으아아악!!!” 누군가의 내지르는 소리가 산을 울린다!!!!

때가 탄 흰 옷을 입고 농기구를 어깨에 맨 채... 상투가 헝클어져 얼굴 위로 머리카락이
흘러내린 순식기와 돌맹이, 그리고 최창득! 분에 가득차서 화면을 노려보는 모습이 위
협적이다! 툭- 암전.

25. 서고 앞 마당 / 아침

F.1 짹짹- 산새 소리와 함께 화면이 환해지면, 찌죄죄한 몰골의 얼굴들이 화면을 들
여다보고 있다.
앞마당에 쪼그려 앉은 아낙네들, 그리고 길송이다.
산사 벽에 기대있는 (거의 널브러져 있는) 알랭의 모습.
노란머리에는 빨간 피가 떡 젖어 있다. 알랭...살짝 눈치를 보며 눈을 떠보는데...

돌맹처 아니, 여기 왜 들어와 있겠어. 도둑놈이라니깐!
순식처 ...근데, 왜 지 혼자만 저런 꼴로 있대유...
돌맹처 (단호하게) 떼놓고 간 거.

돌맹처의 말에 알랭, 눈을 다시 질끈 감아버린다!

돌맹처 지들끼리 호되게 쌈을 한 거지.

죽어있는 척 하는 알랭이 꼴깍- 침을 삼킨다. 그 소리가 들렸는지, 알랭 쪽을 일제히
쳐다보는 아낙네들... 점점 더 긴장하는 알랭...

“캔유리썬? 아유오케이?” 길송이는 대답을 하지 않는 알랭이 아리송해서 고개를 갸웃 거린다. “웨얼아유프럼?” 등등 유창하게 계속 되는 길송이의 영어를 듣자, 움찔움찔 움직이는 눈꺼풀. 눈을 떠야하는 타이밍을 쟀다.

돌맹처 재는 아까 눈뜬 거 다 봤는데, 왜 아직 저러고 있다냐.

이 말에 이제 갓 정신이 들었다는 듯 ‘아아..’ 신음소리를 내면서 깨어나는 척 하는 알랭... 눈을 조심스럽게 뜨자... 알랭의 눈 앞에 바로 보이는 피 묻은 낫!!!
알랭 앞에 선 길송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낫을 들고 있다.

알랭 (겁에 잔뜩 질려, 프랑스어로) 살려만 줘요, 난 진짜 뭘지 모르고 왔다고요.
길송 헤이, 캔유스피크잉글리쉬?
알랭 (이젠 꺼이꺼이 울며) ...돈...많이 벌게 해준다고...

길송이, 눈살을 찌푸린 채 답답하다는 듯 큰 한숨을 내쉰다.

순식처 (걱정스럽게)...길송아, 뭐라는 거여?
돌맹처 (놀림조로) 아니, 우리 길송이가 양 놈말을 못 알아먹을 때도 있나보구먼~
길송 ...그런 게 아녀유.

입을 삐죽이는 길송이가 알랭을 췌려보곤 다시 아낙들에게 해명을 하려 한다.
알랭, 더듬더듬 말을 이어나가는데... 이젠 길송이의 관심을 얻지 못한다.
“미...안해요오~ 나안 그냐양 오는 거예요.” (사실, 프랑스 억양의 한국말이다)

길송 ...양놈도 여러 양놈이 있어야. 뭇도 모르시면서.
돌맹처 그래서...못 알아 듣는 거?
길송 ... (눈 밑의 힘줄이 파닥인다)

지 혼자 떠들고 있는 알랭이 산을 가르켰다가, 서고를 가르키며 설명을 이어나가고 있다. “저영말 나는 그으냥 책만 볼뤄어구” 알랭의 손짓을 보자 길송이의 표정은 멍해지고...
알랭 옆에 놓인 성경책이 눈에 들어온다...

insert) 중국어로 가득찬 만주거리의 소란스러운 풍경.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있는 틈새로 길송이가 비집고 쳐다보는 무언가!
단상 위에 선 노란머리 양인의 모습, 알랭처럼 무엇인가를 강조하며 가르키는 손짓을 하고 있다.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다시 보이는 노란머리의 키가 큰 양인의 뒷모습.

길송 ... (딱 떠올랐다는듯 외치며) 선교사님이어유!

돌맹처 ('그게 뭔데?'하는 표정) 뭐?

길송 선교사님이라구유. 애덜도 가르치고, 아픈 사람도 돌봐주는 사람 말유.

알랭이 손짓발짓으로 먹살을 잡힌 모습, 책을 들여다보는 자신의 모습, 누군가가 자신을 찼다는 걸 표현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며 설명을 이어나가는데...

길송 끌려왔대유. (막 지어내는) 자기는 그냥 성경책을 보고 있었는데...

아낙네들 말이 없다가...“참말이여?”, “이상한데..” 등의 반응을 하며 술렁인다.

아리송한 아낙네들의 표정.... 저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 풍뎡이가 뛰어오고 있다.

풍뎡 잡혔대유!!!! 도적놈들이 잡혔대유!!!

알랭에게서 고개를 돌려, 산에서 내려오는 길을 쳐다보면...

밧줄에 꿰뚫인 도굴꾼 무리가 축-쳐져서 내려온다.

고무된 남정네들이 머리 위로 농기구를 흔든다.

풍뎡 ..헉헉..흠쳐간 책들도 죄다 ...다시 가져 왔슈.

순식처 아이고, 다행이구먼.

돌맹처 (다급하게) 길송아, 저이들 아냐고 물어봐, 얼른!

길송 두유노우뎡피플..?

알랭 ... (눈치를 보다, 고개를 적극적으로 가로챈다)

길송 것 봐유! 모른대잖아유. (우쭐대며 씨익) 아줌만 뭣도 모르시면서...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프랑스도굴꾼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저런 병신새끼는 그냥 죽였어야 했어.” 욕지거리가 터져 나오고... 알랭은 고개를 돌려 외면한다.

아낙네들을 향해 예쁘게 웃어보이는 알랭.

26. 산사 / 낮

쿵쿵거리며 냄새를 맡는 소리가 들리고... 알랭의 옷을 들췄다, 내렸다하는 손길...

마치 물건에 흠집을 잡아내듯 꼼꼼히 알랭을 살피는 작은스님1이다.

예리한 눈빛으로 알랭의 옷가지와 짐들을 살피지만, 알랭은 앞 썬에서처럼 예쁘게(어쩔
쩍하게) 웃고 있다.

큰스님과 작은 스님2은 저만치 멀리서 지켜보고...

작은스님2 저...당연히 큰스님께서 현명하게 결정하시겠지만은... 어떤 자인지도 모른
사람을 이 곳에 들인다는 게...

큰스님 (묘한 리액션) ...흐음...

작은스님2 주제님은 소리인 줄은 알지만은... 저는 조금 걱정이 돼서 말입니다...

큰스님 ...

작은스님2 양인은...어디서나 불란의 짝이었잖...

큰스님 (스님1을 향해, 큰소리로) 언제?

작은스님1 (거리감 때문에 소리치며) 뭐, 별 거 없는데요?

큰스님 (췌소리, 쿨하게) 들어.

자신의 방으로 획-들어가는 큰스님... 작은스님2 멋쩍게 웃으며 길송이를 바라본다.
길송이가 안심하라는 건지, 위로하는 건지 작은스님2의 어깨를 툭툭 쳐준다.

27. 산사_ 알랭의 처소

네모나고, 아무런 장식이 없는 방. 구석에 알랭이 가져온 짐들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다.
알랭이 뽀죌하게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서는데 천장에 머리를 부딪치고는 다시 앉는
알랭...

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본다.

알랭의 등 뒤에 난 창으로 스리슬쩍 훑아오르는 머리 하나! 순식이다!!
다시 창 아래로 사라지는 순식이 머리...

28. 산사에서 마을로 내려오는 길 / 밤

insert)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구름에 가려진다.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스산한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고!

밤길을 걷는 누군가를 확- 잡아끄는 또 다른 누군가의 손. 누군가의 동공이 커진다!

쿵쿵-쿵쿵-거칠게 냄새를 맡는 잡아끈 또 다른 누군가!

순식 아! 뭐여~ 놀랬잖여~

돌맹 가만있어! 뭐 먹었지? 요상한 냄새가 나는데?

순식 (멈칫) ...아녀!

돌맹 순해빠진 녀... 널 처음으로 세운다고 했을 때부터 불안했어야.

순식 (화내며) 아니라니깐! 너는 날 그리 못 믿어?

돌맹 남자는 말여, 적이 나타나면 뭘 주더라도 안 넘어가는 거. 너처럼 홀랑...(계속 되는 격한 잔소리가 계속 되고...)

그 앞에 서있는 순식이는 무료하다는 듯 귀를 파고...

돌맹이가 무엇인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소리는 사라지고 돌맹이의 격한 몸짓만이 부각된다.

어디선가 부엉이가 부엉부엉 울어대는 소리만이 들리고... 풀잎 위에 달팽이가 기어간다...

29. 알랭의 처소 / 밤

insert) 눈알을 굴리는 부엉이의 모습.

후룩후룩 뭔가를 찹찹거리며 먹는 돌맹이.

눈물인지 땀인지를 흘리며 먹는데 열심이다.

돌맹 (감격스럽다는 듯이) 진짜 나먹으라고 차려 놓은 거유?

알랭 (놀라서, 계속 하라는 손짓) ...

돌맹 어찌 이런 걸 준비할 생각을 했대유. 영 사람이 됐구먼! (혼자 좋아한다)

개다리소반에 쌓여가는 달팽이 껍데기들...

30. 마을 곳간 / 밤

지푸라기가 잔뜩 쌓여있는 허름한 곳간. 호롱불을 여기저기 두어 불을 밝혔다.

돌맹이의 긴장한 얼굴...땀이 빠질빠질 흐른다.

돌맹이 앞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앉아있고... 모두들 돌맹이의 입만을 주시하는 듯하다.

돌맹 흠흠...저기...그...내가 그동안 지켜본 결과... (꿀꺽)... 사람은 차암 꽤찮은 거 같슈.

고개를 가웃거리는 사람들. 스님2가 큰스님에게 컷속말로 뭐라고 말을 전한다.

아낙네들도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성님은 어찌 생각혀?”, “에이, 난 양인은 다 별로여..”등등의 말이 오고 간다.

눈치를 보던 순식이 벌떡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

순식 지..지도! 괜찮다고 생각혀유.

옆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순식을 조용히 올려다보는 최창득, 농민이지만 카리스마가 있다.

최창득 ...괜찮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뭐여?

돌맹과 순식이, 서로를 쳐다보며 “근거?”라고 물으며 고개를 가웃거린다. 마을사람들의 미간도 주름지고...

돌맹 아, 성님. 우리가...괜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것슈? 다 지켜본 결과로다가...

혈랭이 (말 끊고) 성님들이 봐봤자 뭐 알겠슈.

돌맹 ...음,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책만 보고, 총도 없고...

혈랭이 사실 그런 척 할려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좀 심층적으로다가 볼 사람을 보냈어야쥬... (창득을 보며) 제가 간다니깐... 참...! 성님들 안 봐도 뻔해유, 그냥 대강 보고...

돌맹 단단히 봤거든?

돌맹이, 욱하는 성질에 혈랭이를 한 대 치려다가, 보는 사람들 때문에 눈을 부라리며 주먹을 꼭 쥐는 시늉으로 상황을 마무리하려는데...

순식 (열받아서)... 지금껏 나한테 먹을 거 주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못 봤슈!!!! 됐슈?

허걱- 하는 사람들의 표정. ‘아이씨...망했다’하는 표정으로 순식이를 쳐다보는 돌맹이.

31. 서고 근처 어딘가 / 새벽

아침 이슬을 머금은 풀잎. 그 위로 달팽이가 느릿느릿 기어간다.

갑자기 화면에 쭈욱- 들어오는 혈랭이의 얼굴.

달팽이를 발견하고는 씨익 웃는다.

32. 산사마당 / 아침

insert) 산사 마당 구석에 동그란 돌들이 동그랗게 놓여있다. 그 앞에 줄 지어 앉은 마

을 사람들...

덜덜덜덜- 대청에 앉아있는 큰스님이 위아래로 흔들린다.

큰스님이 고요하게 옆을 쳐다보면 다리를 떨고 있는 알랭, 무척 긴장한 모습이다.

똥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곧 설법을 전파하실 겁니다.”라고 다정스레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스님2.

(알랭의 시점) 마당에 가득 찬 흰 옷을 입은 사람들.

사람들 사이로 눈 밑에 점이 있는 순식이의 고개가 빠죽 나와 있다. 알랭을 보며 친한 척 손을 흔드는 순식이... 알랭도 손인사로 답하고, 마을사람들을 찬찬히 살펴보는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죄다 순식의의 얼굴이다. 상투 튼 순식이...쭙 진 순식이... 늙은 순식이... 애기 순식이... 스님 순식이... 압박감이 더해지는 알랭의 표정!

길송이가 알랭의 팔을 끌고, 돌들로 구역을 지정한 곳에 알랭을 들여보낸다.

그리곤 그 옆에서 고개를 치켜들고 서 있는 길송이, 빠기는 느낌이다.

길송 우리 선교사님께서서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해주신다고 합니다.

알랭은 멍하게 굳어 서있을 뿐...

길송이의 찔림에 정신이 들었는지... 성경을 펴고 마구 뒤적거리는 알랭, 책장 넘기는 소리가 요란하다.

사람들은 뭘 일인가 시선이 점점 모아지고...

보다 못한 길송이가 성경책의 맨 뒤표지를 편다. 귓속말로 “여기 있잖아유!”

간신히 입을 여는 알랭.

알랭 (프랑스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길송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국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길송이가 뉴스의 동시통역처럼 빠르고 똑 부러지게 말을 전한다.

큰스님의 알 수 없는 표정. 작은스님1, 이상하다는 듯이 있다가 큰스님에게 참지 못하고 물어본다.

작은스님1 저기서 신은 부처님이겠지유?

큰스님 말이 없고...

돌맹처 (귓속말로, 옆에 아낙네에게) 아마 저 나라말 한마디가 우리말 세 마디인가

며.

플래쉬백

알랭 저기, 난 조선말을 할 줄 알아...

길송 알어유. (슬픈 표정으로 뒤돌아보며) 강 못하는 척 해주면 안되유?
...그래야지 여서 내가 쓸모가 있어요.

/ 알랭 (프랑스어) ...네 부..부모를...

길송 (신이 났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간히 고개를 끄덕거리는 마을 사람들.

알랭 (프랑스어) 제 칠은, 간음하지 말...

길송 일곱 번째는유... 간음하지 말라!

돌맹이 눈을 깜빡거리다가, 옆에 앉은 아내에게 은근히 물어본다.

돌맹간음이 뭐여?

돌맹처, 돌맹의 옆구리를 쿡-찌르며 순식처를 향해 고갯짓을 한다.

순식과 순식처의 어두워지는 표정... 헛기침을 하는 돌맹이.

알랭 (프랑스어) 도둑질..

길송 도둑질하지 말라

이번엔 마을사람들이 죄다 헐랭이를 쳐다본다.

“왜 나를 봐유?” 펄쩍 뛰는 헐랭이, 억울한 표정이다.

알랭 (프랑스어) 아홉 번째...

길송 아홉 번째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하지 말라

설교가 다 끝내기도 전인데 불쑥 일어나는 돌맹이.

“자알 듣고 갑니다.” 등등의 인사는 하고 가지만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
...속속 자리를 뜨는 사람들.

울상이 된 길송이!

반면 이제야 해방감을 느끼는 듯, 알랭의 얼굴에서 긴장이 풀린다.

길송이, 가는 사람들을 붙잡다가... 멍석 위에 홀로 앉아있는 최창득을 본다.
길송이의 눈이 반짝 빛나는데!!

길송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저기요~~ 선교사는 병도 고칠 수 있는데!!!!

사람들이 걸음을 멈춘다. 최창득은 희망이 깃든 표정으로 알랭을 올려다보고...!
반면 알랭은 거의 죽음에 임박한 울상이 된 표정이다.

길송이가 집에 가려는 순식처의 팔을 잡는 모습을 보자, 다급한 나머지 길송이에게 소리를 치는데...

알랭 (한국말로) 난 그런 거 못한다고! 어떻게 사람을 고쳐!! 난 그런 거 못 해에!!!!/ cut.

33. 최창득의 집 / 낮

눈을 감고 열심히 중얼중얼 기도를 하는 알랭의 모습.
퀴퀴한 방안에 누워있는 돈할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뜨겁게 기도하는 중이다.
누워있는 돈할매는 눈만 껌벅껌벅거린다.
알랭의 뒤로는 아낙네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세로 지극정성을 들이고 있다.
방 바깥에서 방안을 들여다보는 남정네들...

순식 저기... 어떻게 말을 그렇게나 잘할까..
알랭이 선교사라는 건, 그 나라가면 다 그 나라말을 하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라대유. 길송이가.

insert)

산사 뒤편에서 알랭을 혼내는 길송이.

길송이 아씨! 이제 어쩔 거유. 내가 할 일이 없잖아요.

썩- 알랭의 등짝을 때린다. /cut

/ 최창득 방언이라는거다. 서학자들한테서 들은 적이 있지.

방안을 아련하게 바라보는 최창득...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를 한참 하던 아낙네들의 자세가 조금씩 흐트러지기 시작한다.

곧 코에 침을 바르고... 양반다리를 하고 ‘비나이다’를 하고... 나중엔 그냥 기도하는 알랭만 멍하니 쳐다보고... 알랭은 뒷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계속 기도한다.
툑툑- 알랭의 어깨를 치는 한 사람, 돌맹치이다.

돌맹치 (체념조로) 에라.. 이제 그만 혀유.

길송이의 눈치를 보는 알랭... 길송이 그만하라는 수신호를 보낸다.
알랭이 돈할매의 이마에서 손을 떼려하자, 확- 알랭의 손을 낚아채는 쭈글쭈글한 손.

돈할매 (알랭을 흘기며) 어디 양 념의 것이!!!! (이불을 박차고, 벌떡 일어난다)

마을사람들, 방안의 광경을 멍하니 보다가 기뻐한다.
“아이고, 말썽을 하시네!”, “오매매, 선교사가 기어코 살렸구먼.”등의 말이 오가고...
마당에 있던 스님들도 멍한 표정이다.
카리스마 넘치는 돈할매의 모습...!

돈할매 (알랭을 보곤 고개를 절레절레) 도깨비같이 생긴 것이... 절도 안하고! 말세여.. 말세...

안도의 한숨을 내쉬 알랭이 고개를 들어 길송이를 바라보면...
길송이는 눈에 눈물이 그렇그렇하다. 알랭의 품으로 파고드는 길송이.

길송이 (엉엉 울며) ...역시, 역시 맞았어... 혹시나 아닐까봐...(꺼이꺼이) 걱정 했잖아 유...

가장 당황스러운 건 알랭!!!
엉겨 붙은 길송이를 떼어내려 하지만 꼭 붙어 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본다.

방에 난 창으로 이 광경을 본 풍뎡이가 싱긋- 웃고는 사라진다.

34. 산사_ 알랭의 처소 / 낮

드르륵- 알랭의 방문이 열리면... 더욱 더 행해진 알랭의 방.
책상이며, 창문마저 없어졌다.

voice over 스님2 송구스러워서 어떡하답니까... 하도 용하다니깐 사람들이...하나씩

짚어간 모양입니다.

멍한 알랭의 표정... 알랭의 뒤에서 스님2가 웃음을 참긴 하지만 미안한 표정으로, 다정하게 말을 건넨다.

(위에서 바라본 화면)

알랭의 방바닥을 가로질러 뛴는 길송이. 엉덩이를 치켜 올리고 쭈욱-쭈욱- 걸레질 중이다.

알랭이 점잖은 체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길송의 눈치를 보며... 태연하게 물어본다.

알랭 저...만주에서 너네 선교사님은 어떤 이야길 들려주셨니?

길송 어... 제일 기억에 남는 건... (계속 방 뛴는다) 물고기 두 마리랑 떡 다섯 덩이를 가지고...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은 이야기유.

고개를 끄덕이며, 성경책을 손으로 짚으며 읽어 내려가는 척하는데...

알랭 근데 사람들이 몇 명이었는데?

길송 아... 그건 기억이 안 나유... 졸은 건 아닌데, 오래 전에 들어서... 아무튼 전 사람들이 다 먹었다는 게 참 기분이 좋아유.

알랭 ...대체 어떻게 한 거지?

길송 기적이었쥬. 선교사님처럼...!

35. 산사 마당 / 낮

우와- 하고 감탄하는 사람들의 표정.

돌맹 그럼 다 먹고 남았단 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순식 예수씨는 엄청난 사람이었구먼.

관군 ...저기, 선상님은 못하시오?

멋쩍게 머리를 긁는 알랭... 길송이가 ‘못한다’라는 말에 발끈하며, 치고 들어온다.

길송 못한다니유! 지금은 환경이 낫설어서 그럴 뿐이지, 언젠가는 그 기적도 보여주실 거구만유!

박수를 치며 좋아서 웃는 사람들... 순식이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마을을 상상한

다.

(순식이의 상상) 퍼먹어도, 퍼먹어도 그대로 남아있는 쌀밥. 마을 입구 밖으로까지 사람들이 수저를 들고 서있다. 맨 앞줄에서 행복하게 밥을 퍼먹는 순식이.

voice over 알랭 어... 사람이 죽으면... 그 곳으로 갑니다. 천국!

...‘죽으면’이라는 말에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애뒤틀린다. 점점 어두워지는 화면...

36. 최창득의 집 / 새벽

insert) 어두운 화면에 뜬 초승달 하나.

(누군가의 훑쳐보는 시점) 담장 너머로 최창득의 집 안을 들여다보면...
정정한 돈할매가 마당을 활보하고 있다. “요놈, 왜 이리 늦냐... 요놈!” 허공에 혼잣말을 중얼거리시고 있는데... 담장을 넘어 보는 사람 옆으로, 조그만 그림자가 다가온다!

풍뎡이 (툑툑 치며) 여서 뭐혀유?

누군가!!!!!!

눈에 눈물이 고일 정도로 놀란 알랭이 풍뎡이를 내려다본다.

알랭 너...너는...뭐하냐?

풍뎡이 저야, 할매한테 산삼 주러왔지유.

‘그거야?’라고 묻는 느낌으로, 알랭이 풍뎡이가 손에 쥔 것을 가르킨다.

풍뎡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손을 펴보인다.

풍뎡이 선교사님은 이게 산삼으로 보여유? 아무리 봐도 길송이 공깃돌이구먼.

풍뎡이의 조그만 손바닥에 놓인 다섯 개의 금속활자 조각들!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는 알랭...!

알랭이 손대려 하자, 획- 다시 뺏어가는 풍뎡이.

풍뎡이 이게 산삼이라니 무식해도 정도가 있지... /cut

/ 무엇인가를 주의깊게 들여다보는 알랭의 얼굴...

voice over 최창득 선교사님 덕분에 이제 말도 잘하시고...

불안한 듯 돈할매를 살피는 알랭. 얼굴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입을 벌려보게도 한다.

최창득 팬찮으신 거죠?

알랭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 정말 ...기적이네요.

돈할매, 고쟁이를 뒤적거리며 뭔가를 찾으시며... 못마땅하다는 투로...

돈할매 도깨비같이 생긴 놈이... 말도 하고... 큰일이여.

알랭과 최창득이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입을 오물오물 거리는 돈할매.

37. 순식이네 집 / 아침

썩아- 쌀을 담은 바가지에 물이 부어지면... 환하게 웃는 순식처.

쌀을 사그락-사그락- 씻는 모습이 행복해 보인다.

/ 입을 짹- 벌리고 한 술 크게 퍼먹던 순식이! 담 너머의 알랭과 눈이 마주쳤다.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 웃어 보이는 알랭...

/ 상에 동그랗게 앉은 세 사람. 순식, 순식처, 알랭... 전운이 감돈다.

알랭이 수저를 들어 밥 한 술을 뜨자, 순식은 아리다는 듯 자기 가슴팍 주위를 문지른다.

밥 한술이 알랭의 입 안으로 들어가는데... 차마 못 보겠다는 듯 눈을 질끈 감는 순식이!

voice over 다 됐어?

38. 마을 뒷간 / 아침

눈을 질끈 감고 끄- 힘을 주고 있는 순식의 얼굴.

순식이 ...다 돼...가... (퐁!) 성~ 밖에 있어?

voice 어.

순식이 성, 옛날엔 똥 싸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 줄 몰랐구먼.

voice 그게, 뭐라도 들어가니께 행복한 거지...똥 싸는 게 행복한 거냐?

순식이, 흐- 웃으며 바지춤을 올리면...

39. 산사_ 공양간 / 낮

썩아-하고 부어지는 녹색의 커피콩들... 가마솥 위에서 데굴거린다.

나무주걱으로 휘휘 커피콩을 젓는 알랭...

로스팅(!)을 끝낸 커피콩을 흰 보자기에 싣는다.

/ 뒤꿈치를 들고 산사 찬장에서 탕약기를 꺼내는 알랭의 모습.

화로에 불을 지피고... 부채질을 하는 알랭..

왈왈-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풍뎡이의 까르르 웃는 웃음소리도 들려온다.

성경을 펴서 읽는 알랭의 모습... 열심히 하던 부채질이 점점 느려지고...

알랭이 든 성경 속으로 빠져드는데...

갑자기 쿵쿵거리는 알랭!

부채질을 멈추고, 탕약기를 내린다.

탕약기를 기울여...대접에 따르는데... 커피다!!!!

떨리는 손으로 대접을 입에 갖다 대려는 알랭!

점점 커지는 개 짖는 소리!!

/썹그랑! 알랭을 덮친 누런 개 때문에 그릇이 깨졌다.

정적... 알랭의 찌푸린 표정을 보고 누런 개가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친다.

알랭이 다가가자, 더욱 놀라는 누런 개! 냐다 달릴 준비를 하고!

알랭이 손을 올리자, 겁을 먹고 깨갱거린다.

안쓰러운지 누런 개의 머리를 쓰다듬는 알랭... 누런 개 의외라는 듯 그대로 굳어있다.

이내 킁킁거리며 알랭의 품을 파고 들고... 꼬리를 사랑살랑 흔든다.

마당에는 깨진 그릇과 옆질러진 커피... 그리고 커피물을 뒤집어 쓴 성경책이 덩그러니 놓여있다.

저 멀리 개와 함께 즐겁게 노는 알랭과 길송, 풍뎡이의 모습이 보이면서 화면은 페이드 아웃 된다.

40. 청주관아 / 아침

탁!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밝아지면, 책상에 놓인 장부 하나.
이방이 오만상으로 찌푸린 얼굴로 앉아있다.

이방 웃기지들 말라고 해. 내가 얼마 전에 배곶골에 다녀왔는데 다들 멀쩡했거든?

관군1 그 곳 빼고 모두 피질이 돌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방 어려움? 치!... 못 채우면 말이지... 내가 찢리고, 내가 찢림 너도 찢리고, 이게 어려움이야.

관군1 하지만 다들... 형편이 곤궁하고... 저...생사의 갈림길에 서서...

이방 갈림길에 안 선데서 걷으면 되잖아.

손짓으로 ‘고(GO)’하는 표시를 지어보이는 이방, 이런 와중에도 장난끼가 가득하다.

41. 순식이네 집 / 낮

sound over 와장창- 그릇들 깨지는 소리...

순식처 못 볼 걸 본 듯이 공포에 몸을 덜덜 떤다.

발 밑에 떨어진 밥 상...

이방의 눈에 바닥에 흐트러진 밥알갱이들이 눈에 들어온다.

이방의 기가 찬 표정...

이방 이런...씨...

마을 곳간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이방! 이방을 따라 관군무리들도 쫄레쫄레 따라간다.
헹해진 순식이네 마당...

insert) 문이 활짝 열려진 곳간문... 곳간에 쌓여있는 쌀가마니들...

42. 마을전경 / 낮

insert) 알랭의 기대에 부푼 표정. 손에는 무엇인가를 가득 써놓은 누런 종이뭉치가 들려있다. 설교 준비를 한 것 같기도 하고... 허나 아무도 없는 산사마당!

/문이 열린 곳간 앞에 서있는 알랭... 곳간이 텅- 비어있다!

/순식이네로 성큼성큼 걸어가는 알랭! 눈이 툭툭 부은 순식처와 눈이 마주쳤다.
순식처, 알랭을 봤음에도 급하게 문을 닫고...
/마당에 흩어진 밥알들을 개가 훑아먹고 있다. 어디선가 뛰어온 돌맹처가 개를 발로 뺨
- 차고는 그릇에 밥알을 주워 담는다. F.O

43. 산사, 최창득의 집 / 밤

sound over 치익- 불길이 이는 소리...

호롱불을 가운데 두고... 스님들과 알랭이 마주 앉아있다. 알랭의 옆에 놓여진... 누런
종이 뭉치!

호롱불의 노란 불빛이 화면에 가득 찼다가 빠지면...

일렁이는 불빛을 바라보는 순식의 모습이 보인다.
순식기와 최창득의 얼굴을 살피는 돌맹이...
불빛이 아래에서 비춰서 더욱 경직되어 보이는 최창득의 얼굴!
최창득이 화면 가까이 손을 뻗어 치익- 하고 불을 끈다. 깜깜해지는 화면...

44. 마을 어딘가, 서고 앞 / 밤

insert) 배롱이산의 전경. 까만 산 위에 노란 불빛 세 개가 산을 오르고 있다.

꾸욱꾸욱- 산짐승들의 소리가 울리고... 서고 앞에서 졸고 있는 혈랭이의 모습이 햇불
에 비친다.

돌맹 열어!

혈랭이 ...쩍... 아, 성님! (잠결에 옷을 뒤적거리며) 이게...원래 안 되는 거예요.... (열
쇠를 톡 털어뜨리고) ...우리 엄마만 그렇게 안 잤어도...

열쇠를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다가 펴면... 알랭의 얼굴이 코앞에 와있다.

혈랭이 으아아아아아!!!! 뭐여? 응?

돌맹 (김 샀다는 듯) ...야! 야! 선교사여. ..에라이.

순식 (알랭을 보지 않고, 애매한데를 보며)...하필이면 이럴 때 여기 계셔유...

돌맹과 순식의 노골적으로 실망한 기색이 역력하다. 알랭이 있어 다행이라는 표정의 최

창득...

돌맹 어떻게 사람이 계속 착하게만 산대유... 우린 그냥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돌맹이가 CF의 한 장면처럼 순식의 머리를 붙잡고 얼굴을 맞댄다.
최창득이 답답한 듯 하늘을 쳐다보면... 비현실적으로 달이 가까이 다가와 있고...
소쩍새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최창득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알랭, 묘한 웃음을 흘린다...
‘뭘니까?’하는 최창득의 표정. 알랭이 웃웃으로 손을 가져간다.

일동... 다들 알랭의 손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스윽- 알랭의 웃웃에서 나온 고서 한권!
‘이게 뭐가...’하는 표정으로 고서를 멀뚱멀뚱 바라보는 남정네들.

그리고 화들짝 놀라는 헐랭이!

헐랭이 아니, 뭐여요? 그냥 잠~깐 본다고 하셨잖아유!!! (남정네들 보며) 그런 게 아
녀유! 어제 저녁에 들르셨더라구... 서고 안 좀 구경하겠다고 해서... 나는.. (찹찹맨다)

또 웃웃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면.... 똑같이 생긴 고서 한권이 더 나온다.

헐랭이 (어이없다는 듯) 두 개나 훔친 거유?

알랭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최창득, 고개를 숙이고 고서 두 권을 들여다보는데!
똑같은 표지, 똑같은 본문, 똑같은 서체, 똑같은 종이 재질!!!!
최창득, 얼이 빠진다.

최창득 ...이거 어서 난 겁니까? /cut.

45. 산사 / 밤

voice over 알랭 (웃으며) 애들이 갖고 놀던데요?

알랭의 생글거리며 웃는 얼굴. 바닥에는 밀랍관형 조각들이 놓여있다.
스님2가 진지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인다.

알랭 굵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스님2 네..네.. 이걸 애들이 갖고 노는 겁니다. 그러니깐 신경 쓰지 마세요.

턱- 바닥에 놓인 밀랍관형조각을 손에 쥐는 스님2!

스윽- 스님2의 손목을 쥐어 움짱달짝 못하게 하는 알랭!

알랭 (웃으며) 그런데 이걸로... (힘이 들어간다) ...배불리 먹을 수도 있는데...!

찌릿찌릿 눈빛이 오가는 알랭과 스님2.

한심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던 스님1이 탁탁- 둘의 손등을 후려친다.

둘 모두 아얏-하고 반사적으로 손을 떼자, 밀랍관형조각을 챙기는 스님1!

작은스님1 다시 책을 찍잔 소리 말어. 이제 책을 사는 사람들도 없고... 다들 먹고 사는 일만으로도 벅차니깐...

큰스님, 대화에 끼지 않고 차를 한 모금 마신다.

옛날의 기억으로 흘러들어가는 듯 몽롱해지는 큰스님의 표정... 찻잔에 채워진 차가 찰랑거린다.

insert)

들녘에 익은 곡식들은 바람에 따라 물결이 일고...고목나무의 가지는 푸른 잎으로 가득 채워졌다.

흰 옷을 입은 농민들이 노동요를 부르며 즐겁게 일하고... 산사에서는 깨끗한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분주히 오간다.

“참판댁 족보는 다 만들어졌는가?”, “관아서 부탁한 거마저 다 찍고요.” 등등의 대화가 오가고...

스님들이 각자의 맡은 역할에 따라 주형판에 섯물을 붓고...

쇠툼으로 활자 가지쇠에 달린 활자를 하나씩 떼어내고...

활자를 일정한 크기로 다듬는 모습들..../ cut

/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듯... 선반 위에 놓인 인쇄 도구들 위에 먼지가 가득 쌓여있다.

voice over 알랭 책을 찍으려는 게 아닙니다.

/ 방안에서 수건으로 성경책을 닦다가 알랭, 무엇인가가 떠오른 듯, 얼룩진 성경책을 들여다본다.

플래쉬백)

서고의 책들을 감격에 겨워 살펴보는 알랭...

그 중 한 책을 펴보는데.. 찍혀있는 글자 가장자리에 티눈처럼 툭- 튀어나온 무언가를 보고... 눈동자가 커지는 알랭!

한 줄에 찍혀진 글자 수를 세어보는데... 각 열마다 찍혀진 글자 수도 다르다!

책의 맨 뒷장을 펼쳐보니 1300년경의 연대로 추정되는 연호가 쓰여있고!

voice over 알랭 책을... 똑같이 만드려는 겁니다. 양인들은 좀 목은 걸 원하니깐요.

세 스님 모두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 방 안에서는 정적이 흐른다...

꾸울럭- 큰스님의 차를 넘기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탁, 놓아진 찻잔은 비어있다.

46. 산사_ 인쇄소 / 낮

insert) 구유통엔 썩은 빗물이 가득 차 있다. 이끼로 뒤덮인 뒷마당에 귀신이 나올 법한 인쇄소... 문에는 거미줄이 한가득 쳐져있다.

흑- 하고 먼지를 부는 풍뎅이의 얼굴 앞으로 먼지가 뽀얗게 올라온다.

햇살에 비쳐 반짝반짝 빛나는 먼지들...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낸다.

고서를 손에 들고... 활자통에서 필요한 활자를 고르는 길송이의 모습.

상기된 표정의 스님1이 두둑-두둑- 몸을 푼다.

쪼그려 앉아 금속에 잘 묻는 유연먹을 가는 풍뎅이... 스님1에게 먹물을 흘리지 않게 조심조심 대령하면...

활기찬 음악이 흐르기 시작한다.

(서레이드 컷)

/ 옆구리에 누런 종이뭉치를 끼고 나타난 알랭.

/ 활자면에 먹물을 칠하는 스님1...

/ 그 위에 알랭이 누런 한지를 올려놓는다.

/ 스님1이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인체를 스윙- 꺼내자, 자동이 흠칫 놀라고...

/ 인체로 자동이를 놀리면서도 여기저기 골고루 문지르는데...

/ 인체가 지나간 자리에는 하나씩하나씩 배어나오는 글자들.

/ 그 모습을 홀린 듯 바라보는 풍뎅이와 길송이...

에벌인쇄를 끝낸 누런 종이를 번쩍 드는 스님1

스님1 어때?

알랭 괜찮은데요?

스님1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 오랜만에 하는 작업이 즐거운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는 스님1.

/ 이러한 모습을 못마땅한 듯 바라보는 스님2.

산사의 출판소 문지방 안으로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 못마땅한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는 큰스님의 표정!

/ 긴장한 작은스님1과 알랭, 길송, 풍뎡의 표정이 차례로 지나간다.

/ 푸아!!! 큰스님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작은 물방울들...

분수처럼 위에서 아래로 잘게 내려온다. 화면에 작은 무지개가 어리고...

무지개를 좋아하는 풍뎡이의 모습이 슬로우모션으로 잡힌다.

/ 투둑투둑- 물방울들이 떨어진 곳은, 고서의 표지이다. 촉촉하게 젖은 고서...

/ 고서의 표지 끝부분을 살살 만지니 몇 겹으로 일어나는 종이들...

/ 그중에 한 장을 떼어, 커피물에 담궜다가 말린 종이를 덧댄다.

/ 일필휘지로, 깔린 표지에 적힌 글자와 똑같이 써내려가는 큰스님.

/ 길송이가 지금까지 인쇄한 책들을 차곡차곡 추린다.

/ 옆에서 조그마한 망치를 들고 알짱대는 풍뎡이.

툑- 하는 소리와 음악소리도 사라지고...

작은스님2 앞으로 인쇄물과 표지들이 가지런히 쌓여있다.

어정쩡하게 웃곤 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기색이 역력한 작은스님2.

작은스님2 저..스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좀 아닌 것 같은데...

작은스님2의 발언에 작은스님1의 ‘콧, 씨-’하며 위협하는 표정을 지어보이고...

풍뎡이와 길송이... 걱정스럽게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작은스님2 수행하는 자로써 어찌...

작은스님1 (비꼬며) 지만 수행하나...

작은스님2 이걸 사기입니다.

복잡미묘한 알랭의 표정...

큰스님 ... 사기가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머뭇거리던 작은스님2이 옆에 놓인 송곳을 손에 쥘다.

안도하는 스님1, 고개를 끄덕이는 큰스님... 그리고 알랭의 간단한 목례...

/ 스님2, 가지런히 쌓인 종이들의 책등에 5개의 구멍을 낸다.

/ 대바늘에 실을 꿰어 시원시원하게 책을 엮어내고...

알랭 (흥분된 표정) 다 됐어요?

책에 손을 대려고 하는데... 풍뎡이가 “아직이유!”라고 말하며 책을 뺏는다.

/ 들고 있던 망치로 책을 엮은 실을 쿵쿵 찡는 풍뎡이.

풍뎡이 종이뭉치 빠지면 안되지.

제 뭉치를 해낸 것이 뿌듯한 듯 알랭에게 책을 당당하게 내미는 풍뎡이!

책을 받은 알랭, 진짜 고서와 꼼꼼하게 책을 비교하며 살핀다.

지금까지 이미지와는 다른 날카로운 눈빛! 그러나 쿵쿵거리고, 혀로 책을 맛보는 모습은 영락없이 ‘오타쿠’스런 알랭이다.

알랭 완벽해...

알랭의 칭찬에 쑥스럽지만 기뻐하는 스님들과 풍뎡, 길송이.

스님1이 스님2의 옆구리를 툭- 치자, 스님2는 반응이 없는 듯하다 가도 칭찬은 기분이 좋은지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간다.

알랭 (책의 매듭부분을 보며)...아! 이거 하나만 빼고요.

신나게 웃던 스님1의 표정이 굳는다.

풍뎡이, 이미 예견한 일이라는 듯...

풍뎡 그쥬? 고개 좀 새거지유?

가짜 고서의 매듭부분이 화면에 잡힌다.

47. 최창득의 집 앞 / 낮

(멀리서 바라본 시점) 알랭과 스님1이 땅에 무언가를 그리며 상의하고 있다.
스님1, 흥분해서 나뭇가지를 들고는... 마치 축구코치인 냥 사람들의 동선을 지도하는 데...

알랭이엔 곡괭이를 쥐어주고! 아낙네들에겐 인사연습을 시킨다.
큰스님에게도 다가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각자 분부 받은 것을 연습해보기도 한다.
알랭이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가로젓기도 하고, 꼬덕이기도 하면서 지도에 참관한다.

voice over 스님1 뭇보다도 중요한 건.... 쉬잇!!!! 이거여!

입에 검지손가락을 갖다 댄 스님1의 진중한 얼굴!!!
쭉 늘어선 마을 사람들이 결연한 눈빛으로 스님1의 말에 꼬덕인다.

48. 배곶이마을 입구 / 낮

insert) 배곶이마을 뒷산 꼭대기에... 작은 점 두 개!

voice over 웅기장수2 (짜증이 나서) 아, 꼭 열루 가야 하는겨? 돈이 되길 혀, 인심이 좋길 혀?

voice over 웅기장수1 가고 싶어 가냐. /

/ 고목나무 옆에 지게를 내려놓는 웅기장수들... 자신의 몸집보다 몇 배나 더 큰 부피의 웅기들이 쌓여있다.

/ 멀리서 아낙네들이 줄지어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웅기장수1, 마을을 둘러보며...

웅기장수1 피질이 돌아 난린데, 여긴 팬찮나 보네?

웅기장수2 피질도 죽어나갈 마을인게지. 쫓.

웅기장수 앞에 불쑥 나타난 길송!

길송 (팔짱을 끼고) 우린, 선교사님이 있어서 그러유!

머쓱해진 옹기장수들, 화제를 돌리고 짐을 열심히 푸는 척을 한다.
아낙네들을 향해...

옹기장수2 아, 근데 여기에 왜 그릇이 필요하? 있던 그릇도 다 팔아먹었으면서.

아낙네들 (똥하다)

옹기장수1 (아낙네들 눈치를 살살 살피며) 뭐 일 있는 거? 응?

대답을 안 하는 마을 아낙네들...

돌맹처 ... 팔겨, 말겨?

옹기장수2 (미심쩍다는 듯) 진짜 사는 거? 후회 안 하?

옹기장수2에게서 그릇을 받아가는 돌맹처. 돌맹처를 보며 옹기장수2가 눈을 부릅뜬다.

옹기장수2 무르기 없기여.

옹기장수2가 마을아낙네들에게 옹기를 파는 모습이, 길송이와 옹기장수1의 뒤편으로
비춰진다. 옹기장수1, 길송이에게 나비모양의 조그만 머리핀을 건넨다.

옹기장수1 여송이 있음 줄랬더만... (길송이 표정을 살핀다) 같이 없나보네.

(멀리서 잡는 화면) 길송이와 옹기장수1의 대화하는 모습이 보인다. 길송이의 손에 무
언가를 주는데...

길송이 손 위에 놓인 나비핀.

49. 최창득의 집 / 밤

insert) 마을입구의 커다란 고목나무에는 흰한 등불들이 달렸다. 조선판 성탄절트리 같
은 모습이다. 고목나무에서부터 총총히 이어지는 등불들은 최창득의 집까지 이어져 있
다.

최창득네 대문에 달린 등불에는... 길송이의 나비핀이 얹혀져 있다.

등불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에 활기가 가득하다.

추운 날씨 때문에 입에서는 하얀 입김들이 나오지만 그마저도 즐겁다는 듯 깔깔거리

고...

풍뎡 (배꼽인사, 꾸벅) 어서 옵셔유!!!!

최창득의 집 입구를 지키고 있는 혈랭이... 양인을 보자 얼굴에 환한 미소로 띄운다.
인사를 받은 양인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어허, 다 순서가 있어유.”라고 말하며
곡괱이로 앞 길을 제지하는 혈랭이!

팔 벌리는 제스처를 취하자, 양인도 얼떨떨하게 따라한다.

공항검색대처럼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몸을 더듬더듬 수색하고는!

혈랭이 (끄덕이며) 됐슈! (들어가라는 손짓)

순식차가 재빠르게 대문을 열자... 흥겨운 음악이 흐르면서 빨리 들어가는 화면!
마당 안으로 조심스레 들어서면 양인! 눈 앞에 광경이 믿어지지 않는 듯, 두리번거리며
살핀다.

수십 명의 양인들이 한 줄로 주욱- 늘어선 모습. 얼떨떨하게 맨 끝에 줄을 서는데...
고개를 내밀어, 앞쪽을 엿보니 평상 위에 앉은 큰스님이 천천히 붓을 들고 있다.
예술혼을 불어넣어 휘갈겨 쓰는데... 그것은... 대기번호표!

번호표를 손에 쥔 사람들은 부엌에서 차려나오는 술과 지짐이를 사먹기도 하고...
모닥불 옆에서 노름을 하기도 한다. 각 나라의 말들이 뒤섞여 시끄러운 시장통 같은 분
위기이다.

구석에선 거나하게 취한 양인 두 명이 서로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기도 하고...
길송이의 낭랑한 목소리가 마당에 울린다.

길송 31,32,33번 손님! 넥스트 이즈 썬리원,썬리투,썬리쓰리!

서로 먹살을 잡고 있던 양인 두 명이 길송이에게 번호표를 내고 비틀거리며 사랑방 안
으로 들어간다. 31번, 32번 번호표를 챙겨 전대에 넣는 길송이.

길송 33번 손님 안계십니까? (중국어) 안계시면 34번 손님!!!

노름을 하던 양인하나가 패를 버리고 벌떡 일어나 사랑방으로 향한다.
같이 노름하던 양인들이 판을 엮고...

부엌에선 아낙네들이 분주하게 안주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돌맹처가 부엌에서 차린 상을 노름하는 양인들에게 가져가고...

양인이 다시 시작된 판의 패를 섞을 때...돌맹처의 손이 양인의 주머니로 슬금슬금 다가간다!!!

텍! 돌맹처의 손목을 잡는 누군가! 순식이다.

순식 (은근하게) 형수님... 도둑질 하지 말랬잖아유... (고갯짓으로 알랭을 가르킨다.)

사랑방 안에 있는 알랭. (복제해 온) 고서에 대해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명하고 있다.
고개를 끄덕이며 주의 깊게 듣고 있는 사람들...

돈을 세고 있는 작은 스님1, 돈이 안 맞아 골머리가 아픈지 머리를 긁는다.
민머리에 난 빨간 손자국... 인상을 더 찌푸리며 전표와 번호표를 다시 센다.

부엌의 지짐이가 다 떨어져 몇 장 남지 않았다.
빈 접시와 술병을 가지고 들어온 아낙네가 손으로 지짐이를 집어먹는다.
부엌문을 통해 보이는 바깥풍경... 배곶이마을 뒷산에 동이 트고 있다.

마지막 양인이 비틀거리며 대문을 나선다. 돌맹이가 다가가 부축하는 모양새로 팔을 둘러맨다. 하얀 종이와 빨간 인주가 들려있는 돌맹이의 손!

대문 밖에서 비몽사몽인 양인을 세워두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돌맹이.
양인은 가만히 서있지 못하고 비틀비틀거리며, 자꾸 쓰러지려 한다.

돌맹이 (텍-텍- 손으로 짚으며) 여기랑, 여기랑, 여기 찍으시구유. (양인의 손가락을 가져다 꺾-꺾고는) 이젠 어디 가서 말하면 디진단 뜻이니께 (쓰러지는 양인을 세우고) 그렇게 알구유. 아이구... 많이 자셨네. 무튼 조심해서 가유.

돌맹이가 양인을 놓자마자, 툭-! 땅바닥에 쓰러져버린다.

아낙네들이 바닥에 널부러진 번호표와 주전부리를 찌리빋자루로 쓸어낸다. 싸락싸락-바닥을 쓰는 쾌청한 소리가 울려 퍼진다.

마을 곳곳에 빗자루를 가져다 놓는 풍덩이...

곳간 구석에 팔다 남은 책들과 파본破本들이 쌓여있다.

순식처가 그릇을 가득 쌓은 소반을 들으려하자, 그 모습을 저 멀리서 보곤 뛰어오는 순식이. 아내의 손에 들린 소반을 뺏어들어, 느릿하게 부엌까지 옮겨놓는다.

순식이를 향해 수줍게 미소를 보이는 순식처...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본 돌맹이가 제 아내 곁으로 슬며시 다가간다.

배곶이마을에 새벽안개가 포근하게 내려앉았다.

50. 산사, 마을우물, 공양간 / 낮

뿌연 화면... 화면이 점차 빠지면... 알랭의 안경에 하얗게 김이 어려 있다.
공양을 드리던 스님들도... 아이들도 모두 깔깔대고 웃는다.
알랭은 밥그릇을 들고 있다가 내려놓곤 안경을 닦는다. 피식- 웃음이 터지는 알랭...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는 아낙네들의 손에 힘이 붙었다. 활기가 넘치는 마을 우물가.

sound over 가릉가릉- 낮게 코고는 소리.
풍뎡이가 웅크리고 자고 있는데... 바닥에는 하얀 쌀이 가득 깔려있다!
몸을 뒤틀수록 점점 쌀 속으로 파묻히는 풍뎡이...
삐걱- 소리와 함께 갑자기 밝은 빛이 들어오고! 작은스님2가 화면을 내려다보고 있다.
뒤주 안에서 자고 있는 풍뎡이의 모습. 행복한 꿈을 꾸는 듯 미소 짓고 있다.
조롱박으로 쌀을 한바가지 가득 푸면...

51. 최창득네 마당 / 낮

insert)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이 그릇 가득 담겨있다. 와아-하는 감탄하는 마을 사람들의 표정.

순식 이게 천국인가벼...

답하지 않고 먹기에 바쁜 사람들... 벌써 한 입 가득 채워 넣었다. 돌맹이가 한참을 씹다가 대꾸한다.

돌맹 극락?

순식 아니... 그건 스님들이 가는 데고... 선교사님이 죽으면 간다는데 있잖여.

돌맹 언제 말했는디?

최창득 집 때. (저번에)

돌맹 (가웃거리며) ...줄았나.

순식 고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보고픈 사람이란 평생 살 수 있는 데라했어.

돌맹 에이, 그런 데가 어딴어~ 다 뺑이여! 여서 살다 죽으면 뺑인 거지 뭐.

순식 ... 없을려나?

다들 잘 모르겠다는 표정들... 밥은 계속 씹는다.

순식 ...우리 순이는 거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급하게 밥을 푸던 손들이 멈춰진다. 꺾꺾- 밥을 씹던 돌맹이가 우직하게 말한다.

돌맹 ...에잇, 그럼 그런 곳 꼭 있어야겠구먼.

다들 누군가가 생각나는 듯, 천천히... 천천히... 밥을 씹는다. 밥을 한가득 문 혈맹이의 눈에 동그랗게 눈물이 맺힌다.

voice over 왈왈- 개 짖는 소리...

52. 산사 / 낮

insert) 암사의 물고기 모양의 풍경이 바람에 따라 흔들린다.

눈을 슬며시 감은 채 감미롭게 향을 음미하는 풍뎡이... 손에는 막사발이 들려있는데... 그 내용물은 그냥 맹물이다.

그런 풍뎡이를 어이없게 내려다보는 알맹의 표정... 커피를 담은 대접을 들고 있다.

누런 개가 꼬리를 흔들며 풍뎡이와 알맹에게 뛰어온다.

개를 보자마자, 대접을 머리위로 번쩍 들며... 경계하는데!

개의 뒤를 헉헉대며 쫓아오는 사람... 돌맹이다.

돌맹이 아이고, 선교사님이 계셨네. 저기... 이 개는 제가 마을로 데려가서 놀게유.

알맹의 품에 안긴 개를 제 품에 안는 돌맹이. 개가 킁킁거린다.

돌맹이가 인사를 꾸벅하고는 마을로 사라지자, 풍뎡이도 “저도 끼워주면 안 돼유?”라고 말하며 같이 내려가고...

그 모습을 마루에 앉아 지켜보는 길송의 모습, 어깨가 축 처져있다.

알맹 길송인 같이 안가?

길송 (절레절레) 애랑 놀아주는 것도 귀찮아유.

손으로 매만지는 나비핀...

알랭 그래도 풍뎡이 없으면 심심해 할 거면서.

길송 그쵸? 그래도 있다 없으면 허전하고 그럴텐데...

알랭 ...?

길송 ...울 언니는 내가 생각도 안나나?

플래쉬백)

/옥수수 대가 끝없이 늘어선 만주벌판을 걷고 있는 두 자매...

가쁜 숨을 내쉬고 있는 여송이의 모습. 여리여리한 몸매가 드러나는 치파오를 입고, 머리 장신구들로 치장한 차림새지만 화장기 없는 얼굴 덕에 화려한 분위기는 아니다.

/ 웅한 배꽃이마을과 텅 빈 농토를 바라보는 여송이...

/탁- 매물차게 문을 닫는 사람들. 닫은 문 건너편으로 매마른 목소리가 들려온다.

목소리 솔직한 말루 말여, 너그 집이 그렇게 떠나고 우리 다 인정 내느라고 죽는 줄 알았다. 근디 이제 돌아와서 한단 소리가...!

여송이의 손을 잡고 있는 길송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치만 본다. 지금보다 몸집도 더 작고 꺾꺾꺾한 모습이다. 여송, 길송을 보며 하는 수 없다는 듯 말한다.

여송 아무래도 산사로 가야겠다.

길송 싫어, 거긴 다 땡중들만 있다며. 엄마도 옛날에 거긴 근처도 가지 말랬는데?

/ 자매 앞에 서있는 스님1, 뚱한 표정이다.

스님1 맡겨달라고? 뽕으로?

요송 저, 가진 게 없어서...

스님1이 여송이의 목걸이를 뺏히 들여다보고 있다.

여송이, 못마땅하지만 애써 웃으며 목걸이를 풀러 건네주고...

여송 (길송에게 속삭이며) 땡중 맞다야.

스님1, 여송의 목걸이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 길송의 손에 은밀하게 금덩어리를 쥐어주는 여송!

여송 혹 언니가 못 데려올지도 모르니깐 말여...

길송이의 작은 손가락 사이사이로 금덩어리의 모습이 비춰지며 반짝반짝 빛난다.
스님1의 눈에 쏘아지는 금빛! 그 모습을 본 길송이, 재빠르게 여송이의 소매로 금덩어리를 밀어넣는다.

길송 아녀, 땡중이 또 뺏어갈겨.

두 자매를 보는 스님1의 미심쩍은 표정... 뭐가 좋은지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두 자매.
/cut

/

길송 그걸 내가 가지고 있었어야 했어요. 그래야...그것 때문에라도 여기 다시 올 생각을 할텐데...

알랭 에이, 무슨 일이 있겠지.

더 침울해지는 길송의 표정.

알랭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농담조로) 언니가 정 안 오면 우리가 한성으로 가면 되지!

눈을 툇그랗게 뜨고 알랭을 올려다보는 길송이.

길송 ...우리가요? 정말로유? 언제유?

알랭 (다른 고민을 하며) 음...

플래쉬백) 스쳐지나가는 빨랑시의 얼굴

알랭 ...쫄만 더 있다가.

길송이가 환하게 웃자, 알랭이 윙크로 답한다. ‘짹긋-’
툇- 암전되는 화면.

53. 불란서 공사관저 / 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빨랑시가 전화를 받고 있다.

쁠랑시 (프랑스어) 네... 하하... 찾는 게 좀 있어서... 아! 하나는 찾았구요.

문이 열리고 차를 가지고 들어오는 여시중...

전화를 받으며 손으로 ‘거기다 뒤.’라고 지시하는 뽀랑시!

찰랑거리는 홍차에 여송이의 얼굴이 비친다.

54. 청주 읍내 장터 / 저녁

물지계를 지고 나르는 사람, 생선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 국밥을 맡아주는 통통한 아낙네, 지계에 커다란 돼지 한 마리를 지고 가는 돼지 장수들이 이리저리 뒤섞여 혼잡한 장터 풍경을 이룬다. 간혹 사람들 머리 위로 불쑥 솟은 양인의 머리통이 보이기도 하고...

혼잡한 사람들 틈 사이로 느릿느릿 걷고 있는 이방...

이방을 본 사람들은 물길에 갈라지는 것처럼 상점 안으로 들어간다.

옹기장수의 떠드는 소리가 들리자, 걸음을 멈추는 이방.

짐을 풀어놓고 탁주 한 사발씩 들이키고 있는 옹기장수 무리의 모습이 멀리 보인다.

옹기장수 목소리 참 신기하지? 배곯이마을에서 내가 그릇을 파는 일도 다 있구...

무리 목소리 (받아치며) 제사에 쓰려나보지 뭐.

으하하하- 폭발하듯 터져 나오는 웃음소리...

이방의 눈매가 찌푸려진다.

이방 (혼잣말) 이상해, 정말 이상해.

짜증이 났는지 뒤를 뺀- 돌아보면! 굳어서 서있는 관군1.

이방 거기 땡중들이 책 짠 걸 다시 하나?

관군1 에이, 이제 그런 책 사는 사람도 없습디다요. 한성에선 신문도 나왔단데...

이방 (머리를 긁적이며) 흠... 혹시 없어진 책은 없구?

관군1 야-. 그 옛날에 불란서 놈들이 두 권 훔쳐간 거 말고는 전혀 없습디다요.

고개를 가로짓는 이방. 관군1에게 가까이 오라는 손짓을 한다. /

55. 서교 앞 / 초저녁

insert) 서고 마당에 패인 웅덩이에 똑-똑- 한방울씩 떨어지는 빗방울.

서고 앞에서 관군 하나가 꾸벅꾸벅 졸고 있다. 쓰읍-하고 침을 들이키다, 손을 처마 밖으로 내밀어보는데... 손에 빗방울 몇 개가 묻는다.

‘아이씨-’ 짜증을 내며 관군이 얼굴을 들면... 헐랭이가 아니라 관군1이다!

56. 최창득의 집 대문 / 저녁

insert) 어두운 달빛에 비친 고목나무... 더욱 으스스하다. 바람이 불자, 가지들이 부딪히며 더욱 기괴한 소리를 낸다.

최창득네 대문 앞에서 뽕뽕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이고 있는 헐랭이와 순식이. 대문에 붙여져 있는 그림... 직사각형에 X자 표시를 해놓았다.

깜깜한 배굼이 마을에... 갑자기 불빛이 둥둥 떠다닌다. 놀란 순식이!!!!
확- 덮칠 듯 코 앞으로 다가오는 불빛!!!!

남포불(램프)를 든 양인이다...!

헐랭이가 한숨을 쉬며, 곡괭이로 대문에 붙여놓은 툇툇- 가르킨다.

헐랭이 장사 안합니다.

꾸벅 인사를 하자, 실망한 양인이 발걸음을 돌린다. 그 모습을 허망하게 보던 헐랭이...

헐랭이 나 짤린 거 알면 우리 엄마 기절하겠네.

순식이가 헐랭이를 이상하게 쳐다보면...

헐랭이 (곡괭이로 위를 가르키며) 하늘에서 말여.

깜깜한 밤길에, 둥둥 떠다니는 몇 개의 램프가 최창득네 집으로 점점 가까이 온다.

57. 마을 곳간 / 밤

insert) 어두운 마당으로 곳간 문틈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떨어진다.

마을 곳간에서 짚신을 이고 있는 사람들... 돌맹이가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고... 헐랭이는 꾸벅꾸벅 졸고 있다.

돌맹이 이거 팔면 얼마 받지?

조용히 짚신을 이며, 손가락 한 개를 펴는 순식이.

돌맹이 ...책 팔면?

순식이... 눈을 꿈벅거리며 생각하다가,

순식이 에이, 이런거 안 해도 되지...

돌맹처 예효... 근데 그 좋은 장살 이제 못하니 어찌난 말여!

말이 없는 사람들...

헐랭이 (줄다말고, 부은 눈으로) 에이, 솔직히 좋은 것은 아니쥬.

헐랭이의 발언에 싸해지는 분위기.

돌맹이 ...다 사람 사는 게 먼저여.

헐랭이에게 짚신을 던지는 돌맹이. 헐랭이의 머리를 맞고 툭- 암전.

58. 돌맹이네 마당 / 아침

어슬렁어슬렁 걸어서... 돌맹이네 짚 앞에 도착한 까만 개.
무언가를 보곤, 마당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멈춰서 있는데...

마당에는 텅 빈 개밥그릇만 굴러다닌다.

sound over 깽깽- 대는 개소리.

59. 최창득의 집 / 아침

insert) 배곶이마을이 집집이 잡히면, 다 비어있는 집들..

마루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뒷모습. 원래는 하얀 색이었을 버선의 밑바닥이 시꺼먼 색이다. 방문 앞에는 마을 사람들이 안방 안의 광경을 보려고 웅기종기 앉아있다.

“괜찮으신가?”, “또 선교사님이 고쳐주겠지, 뭐.”라고 수군거리는 사람들...

이미 자리를 잡고 앉은 사람들 사이를 꼬질꼬질한 발로 파고들거나, 몸을 뒤틀면서 자기 앉은 자리를 넓힌다.

폴짝폴짝 뛰어보지만 키가 작아 사람들 뒤통수만 봐야하는 길송이와 풍뎡이... 실망스러운 듯 서로를 마주본다.

풍뎡이 그냥 갈까?

길송이 안 다.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을 놓칠 수야 없지. ...잠깐만.

한껏 기대하는 사람들. “참, 용하다니께-” 등등의 알랭을 칭송하는 말들이 낮게 오간다.

머리를 굴리느라 길송이의 미간에 주름이 잡힌다. 씨익- 웃는 길송이!

길송이 어 떡이다!!!

풍뎡이 어디?

‘떡!’이라는 말에 일제히 마루를 내려다보고... 그 틈을 타서 길송이가 풍뎡이의 손을 잡고 문지방 바로 앞에 떡- 하고 자리를 잡는다.

길송이를 위대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는 풍뎡이...!

방 안에는 최창득이 말없이 앉아있다.

근심이 가득한 알랭의 얼굴... 결눈질로 방 밖의 구경꾼들을 보기도 한다.

알랭... 떨리는 손으로 돈할매의 이마에 손을 대어보는데!!!!

“이 노옴!!!!!!”하고 노기에 서러 소리를 뻑- 지르는 돈할매.

알랭이 화들짝 놀라, 손을 치운다.

작은스님1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알랭을 쳐다보고...

화면 가득 잡히는 돈할매의 얼굴...

괴기스러운 분위기의 동공이 풀린 눈과 퍼런 얼굴색!!!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알랭이 조심스레 입을 열고...

알랭 저... 의원을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최창득 많이 중합니까.

알랭 (거짓말 하는게 티 나는) 그... 양의학으로는 한계인 병인 것 같아서...

알랭이 말이 끝나자마자 “곧 죽을 병인가며.,” “노망난 거 아녜어?”의 수군거림이 오간다.

모여있는 사람들 틈에서 돌맹치가 빠져나온다. 툭툭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걷는데...

#플래쉬백)

차갑게 시선을 거두는 돈할매(큰마님)의 모습. /

/ voice over 돌맹치 의원은 무슨 놈의 의원... 언제까지 살고 싶어서...

갑자기 멈춘 돌맹치의 발걸음! 길가에 풍뎅이의 모자가 떨어져있다.

마당에 거품을 물고 쓰러져있는 풍뎅이!!!!

60. 산사_ 큰스님 처소 / 밤

치익- 초에 불이 붙는 소리가 들리고 화면 전체가 노란 불빛으로 가득 찬다.

voice over 큰스님 평생 안 아파 본 놈이여.

점점 작아지는 불꽃... 작은 스님2의 눈동자에 불꽃이 비춰져, 일렁인다.

작은스님1 ...뭔가 이상합니다.

알랭 (불안한 기색) ...의원을 불러야 해요.

작은스님1 (날카롭게) 뭘 돈으로?

알랭

작은스님2 일단 마을곳간에 있는 걸로...

작은스님1 (비웃으며) 마을사람들이... 그리 해주리라 생각이 되는가? 아무리 받은 게 많아도 주는 건 모르는 게 이 마을이야.

작은스님2 마을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작은스님1 (무시하듯) 넌 몰라. 이 마을을.

웃으려 하지만 미묘한 경련이 일어나는 스님2의 얼굴...

스님1은 못마땅한 듯 알랭을 노려본다. 스님1의 시선을 피하는 알랭...

작은스님1 더 이상 돈 나올 때는 없어. 다 끝났다고!

문 밖에서 삐걱- 엇나간 마루바닥을 밟을 때 나는 소리가 들리고... 작은스님1, 작은 소리에 민감하게 경계한다.

insert) 덜컹덜컹- 바람 때문에 문이 세차게 흔들린다.

코가 빨개진 길송이가 미닫이문을 열고 얼굴을 뺨뚱 내민다. 방안의 눈치를 살피는데...

큰스님 들어와도 돼.

길송이 마루에 앉아, 품 속에 지니고 온 것을 꺼내는데... 오래된 책 두 권이다. 누런 표지 위에 쓰인 글자를 보자, 알랭의 눈동자가 떨린다.

책을 보자마자, 그대로 굳어버린 스님1. 스님2는 아예 외면하고...

큰스님 (알랭을 보며) 웬만한 값어치는 할 것 같은데, 한 번 봐줄 수 있겠는가?

알랭의 바들거리며 직지를 향해 손을 뻗는다.

이 모습을 놓치지 않고 쳐다보는 스님1.

알랭, 손에 들어가는 고서 두 권... 알랭이 책을 핀다.

#플래쉬백_ 상들리에가 걸린 밝은 연회장의 풍경.

글자가장자리의 티눈을 만져보는 알랭...

#플래쉬백_ 빨랑시 책상 위에 퍼놓은 지도.

책을 엮어놓은 종이뭉치를 들여다보는데...

#플래쉬백_ 빨랑시 앞에 도열한 양인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진 글씨... ‘(한자)고려우왕 7년’을 보자 눈이 커지는 알랭!

#플래쉬백_ 빨랑시의 손에 들린 금화! /cut

/

알랭 이거면... 너무... 충분합니다.

직지直旨의 모습이 처음으로 화면에 잡힌다.

문에 발라 놓은 창호지 위에 비춰진 까만 그림자가 움직이고...

61. 산 속 / 밤

산 속을 빠르게 내달리는 누군가의 발!!!

62. 마을 곳간 / 밤

sound over 벌컥- 곳간의 문을 여는 소리

insert) 문에 매달아놓은 짚신 뭉치가 흔들린다.

혈랭이 그림... 뭐여? 우리만 빼고 작당 중이라는 거여?

돌맹처 지들끼리만 살려고 끝까지 안내놔구먼. 쳇.

혈랭이 (어병하게) ...그럼 그 소문도 사실인가?

웅성거리는 마을 사람들...

아낙1 거봐, 마을사람 다 죽어나가도 꿈쩍 안더니만 풍뎡이가 아프다니깐, 내놓는 거.

플래쉬백) 산사의 행랑채를 막고 선 큰스님의 모습. 방문을 열자! 만삭의 임산부가 앉아있다.

마을사람들을 보곤 놀라서 숨으려하는 임산부. /

/돌맹 (최창득을 향해) 성님! 성님은 참을 수 있겠슈? 누가 땡중새끼 아니랄까봐 이렇게 뒤통수를 치나?

혈랭이 그러게... 할마님 아프달 때도 가만히 있더니만...

최창득, 아무런 대꾸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돌맹 성님! 어디 가셔유? 따지러 가는 거요?

순식 ...(눈치보다가) 같이 갈까유?

탁- 곳간의 문이 닫히고... 분위기가 싸해졌다.

순식 조용히들 하자고. 가장 부애가 나는 건 아무래도 성님이지.

죄책감이 어려 있는 표정들...

63. 산사_ 알랭의 처소 / 낮

방을 가로질러서 걸려있는 빨랫줄. 빨랫줄에 널려있는 누런 한지들!
알랭이 한지들이 잘 말랐는지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도 맡아본다.

#ins_voice over 스님1 저, 스님... 저는... 저희끼리만 했으면 합니다.

잘 마른 것들을 추리는 알랭의 모습.

#ins_voice over 스님2 저 선교사가 아니면 제대로 검수를 할 자가...

빨래 개키듯 차곡차곡 정리해놓는다.

#ins_voice over 스님1 (짜증난다는 듯) 자넨 좀 조용히 하게. 스님... 전 저자를 믿
긴 하지만... 의심스럽습니다.

#ins_voice over 큰스님 ...그게... 뭘말이여? /

/고개를 갸웃거리는 알랭. 삐걱- 문을 열면, 누런 한지들을 옮기고 있는 길송이.

알랭 길송아, 커피콩 어디다 뒀는지 아니?

길송이 ...아! 아마 풍뎡이 뒀주 함 보셔유.

알랭 오, 메르쎈!(고마워!, **윙크**를 한다.)

누런 한지를 들고 있다가 깜짝 놀라는 길송이!

들고 있는 한지들을 가만히 내려보다, 냄새를 쿵- 맡아보곤... 살짝 미소를 짓고...

길송 냄새 조오타!

#ins_voice voice over 스님1 (말로 설명이 안되어 답답한!) 아무튼 뭔가... 이상합니
다.

64. 산사_ 공양간 / 낮

삐걱- 뒤주를 여는 소리와 함께 알랭의 얼굴이 보여진다.

쌀 대신 풍뎡이의 잡동사니들이 쌓여있는 뒤주... 마치 보물을 은닉해놓은 듯 쌀알로 덮여있다.

쌀알을 털어내고, 커피봉지를 들어 올리는 알랭. 뒤주 구석에 처박혀 있는 흰 봉투에 시선이 향하는데!!

#플래쉬백)

풍뎡이 이게 무슨 산삼이어유, 이게 산삼이지!

(풍뎡이의 시점) 자신의 손에 진짜 산삼이 들려있다!

알랭 (고개를 갸웃) ...약인가?

(알랭의 시점) 흰 봉투를 들고, 산삼이라고 우기는 풍뎡이의 모습...

고개를 돌려 마당 안쪽을 넘어 보면....알랭의 코 앞으로 다가와 있는 돈할매의 얼굴!!! 슬며시 웃으며 입을 여는데...

돈할매 (은근하게) 운 하나는 타고난 놈이여. /cut

/

풍뎡이가 보여줬던 그 봉투를 펴보면... 네모반듯한 종이에 피라미드 모양으로 올려져 있는 한 줌의 끈적한 갈색가루!

조금 찍어서 먹어본 알랭! 충격을 받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다!

65. 서고 앞 수풀 / 낮

insert) 수풀 속에서 양인들이 관군1의 날카로운 눈매로 쳐다보고 있다. 주위를 둘러보며 경계하다가, 바비큐처럼 까맣게 탄 검은 개의 털을 뽑기 시작하는데... 고기 먹을 것이 기대되는 듯 흥이 나는 표정이다.

그 모습을 토할 것 같은 표정으로 지켜보던 양인들...

툑툑- 양인의 소매를 치는 작은 손... 풍뎡이다.

풍뎡이 기브 미.

풍뎡이의 뽀뽀머리를 쓰다듬으며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봉투 여러 개를 꺼내주는 양인.

양인 (영어) 되도록, 여러 사람한테 줘라.

풍뎡이 오케이, 오케이! 넥스트 이즈 씨리투!

풍뎡이, 그저 해맑게 들은 영어를 말하는데... 양인들이 ‘오, 32명이나?’, ‘이 꼬마, 제법 인데?’라고들 지껄이며 풍뎡이의 볼을 꼬집는다.

66. 최창득의 집 / 낮

돈할매가 먼 산을 바라보며 건포도 먹듯, 손에 쥔 무언가를 오물오물 거리며 마루에 앉아있다. 담장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자 힘겹게 일어나서 “우리 똥강아지! 이제야 오면 어떡하누...” 기품 있게 걸어가는데...

담장 위에 불쑥 솟은 돌맹이의 얼굴을 보고 단단히 실망한 기색이다.

돈할매 에라이... 쌍 념의 것.

돌맹이 할매! 성님 어디 갔슈?

대답하지 않고 돌아서는 돈할매.

돌맹이 (안들리나... 큰 소리로 다시 부르는데) 할매! 할매!

돈할매 (고개를 절레절레) 쌍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

돌맹이 (혹시나 해서) ...마님?

돈할매, 걸음을 멈춘다.

돈할매 ...산사에 가보거라.

얼떨떨한 돌맹이의 표정... 갑자기 돌맹이의 얼굴이 굳어지고...!

잔뜩 열 받은 목소리로 소리친다.

돌맹이 이런 쌍. 끼리끼리 놀겠다 이거지! / cut

67. 산사_ 인쇄소 / 낮

활자를 뽑아 인판틀에 조판을 하는 스님2... 밀납을 계선 사이에 깔아놓는데...

열을 가하여 녹인 후 활자를 그 위에 배열한다.

익숙하게 인쇄작업을 하지만, 근심에 쌓인 얼굴로, 기계적으로 제 할 일들을 하고 있다.

애벌인쇄를 한 종이뭉치를 들고 나오는 길송이, 인쇄소 문 앞에 서있는 최창득과 마주친다.

길송 (최창득을 뵈히 쳐다보며, 이상하다) 스님, 나으리 오셨는데요?

작은스님1, 일손을 멈추고 밖을 내다보면...

최창득 ...저희들도 살려주십시오.

최창득의 손에는 벼루와 먹, 그리고 붓이 들려있다.

68. 큰 스님 처소 / 낮

insert) 한 쟁반에 담겨있는 빈 찻잔 5개... 저마다 한 개씩 집어 가는데...

각기 다른 모양의 봉투들을 들고 있는 길송이.. 그 중에 번쩍- 한 개의 봉투를 드는데!

길송 젤로 높은 텔 써 보낸 데는 서바나(스페인)예유.

스님1 ...그 정도 돈으론 어렵도 없어!

다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다.

각 사람들 앞에 놓인 찻잔을 멍하니 바라보는 최창득...

최창득 ...꼭 한군데만 팔아야하나요?

일동 모두 놀란 표정으로 최창득을 쳐다본다.

최창득 ...다 팔아요!

서로의 얼굴들을 쳐다보고...! 스님2, 질겁한 듯이 마른 침을 꿀꺽 넘긴다.

스님1 안됩니다!

스님1의 반대에 의외라는 듯 모두가 스님1을 바라보면!

스님1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금방 망한다구...

큰스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데...

최창득 ...마을 사람들 몇몇한테도 들어간 듯 해요...

아연실색한 큰스님의 얼굴!!

69. 마을우물 / 낮

침병- 우물물에 두레박이 빠지고... 끼익-끼익- 도르래에 감긴 밧줄이 올라간다.

voice over 아낙1 저기 너도 풍뎡이가 주워온 거 먹어봤냐?

voice over 아낙2 그게... 근육통도 없어지고 팬찮던데...

깡마른 팔이지만 강인하게 두레박을 번쩍 드는 아낙네의 팔!

하지만 얼굴을 보면 눈 밑이 썩하고 입술은 푸르죽죽하다.

70. 알랭의 처소 / 낮

알랭의 처소에 누런 종이들로 만든 책이 잔뜩 쌓여있다.

책장을 한 장 씩 넘기며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알랭...

옆에서 길송이가 그 과정을 경이롭게 쳐다보고 있다.

글씨가 번진 것, 염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복제본 중에 불량인 것은 오른쪽으로 제껴놓는다.

알랭의 책상에 쌓인 완벽히 똑같은 복제본 5쌍!

알랭 자! 애네들이 팔릴 놈들!

길송 (진본과 비교하며, 칸에 찍힌 활자수를 센다) ...완전 똑같네유.

알랭 (진본을 들며) 그리고 이건 큰스님께...

길송 야. 알겠어유.

길송이가 진본을 받아들려는데... 알랭이, 손에 힘을 주고 진본을 놓지 않는다.

요상한 실랑이가 이어지고...

알랭 아! (꽉 쥐며) 아까 내가 뭘 확인 안 한 거 같은데...

길송 걱정 말어요. 제가 다 했어요.

아쉬운 알랭의 표정... 안심하라는 길송이의 끄덕거림에, 어쩔 수 없이 진본을 텐 손을 뻗는다.

알랭 ...그래, 길송인 참 ...똑똑하구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길송이에게 멍쩍어서 싱긋- 웃어주는 알랭.

길송이가 고민을 하더니... 아주 쉼-게 **윙크**를 한다. 그리곤 무슨 말인가 하려고 하는데...

밖에서 “길송아!”하는 작은스님1의 부름에 뛰어나가고...

알랭의 방안에 덩그러니 놓인 직지 진본...

71. 어떤 길 / 새벽

insert) 대 밖에 남지 않은 발에 서리가 내려앉았다.

푸르스름한 화면에 퍼지는 하얀 입김!

오솔길을 헤치는 빨갛게 얼은 손! 조금하계 걷는 걸음!

쓰읍-하고 콧물을 들이키고는 등짐을 고쳐 메는 알랭!!!

insert) 고목나무에 앉은 부엉이가 고개를 가웃거리는데... 마을입구의 고목나무를 벗어나 저 멀리 걷고 있는 알랭의 모습이 보인다.

조급한 듯 입술에 침을 바르고,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닦는 알랭...

제 품을 더듬거려 ‘물건’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얼마나 왔는지... 뒤를 돌아보는데!!!

저 멀리서 길송이가 뛰어온다.

voice over 길송 (소리치며) 같이 가유~~같이가유~~~

화들짝 놀라는 알랭... 길송이에게로 뛰어가 길송이를 붙잡는다.

등에는 제 몸만한 봇짐을 메고 숨을 고르고 있는 길송이!!!

알랭 너...너... 왜 여기?

길송 아, 혼자 가는 게 어딴어유?

알랭 ...?

길송 ...나 언니한테 데려다 준대매요?

난감한 표정으로 길송이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길송 걱정 안 해도 돼유. (자랑스럽게) 제 할 일은 다 마치고 왔다니깐요. 얼른 갑시다!

재촉하며 알랭의 팔을 이끄는 길송...

넋이 나간 듯 멍뚱 표정으로 마을을 바라보면... 뒷산에 해가 떠오르고 있다.

insert) 웅한 알랭의 방안을 들여다보는 스님1.

알랭 (체념한 듯) ...가자.

길송, 원하던 바였다는 듯 생글거리며 붓짐을 고쳐 멘다.

밭길을 마을 쪽으로 돌리는 알랭... 알랭의 손을 잡아끄는 길송이!

길송 (이상하다는 듯) 왜 걸루 가유?

알랭 오늘은 날이 아니야. (멍하게) 비가 올 거 같기도 하고...

길송이가 하늘을 바라보면 청아한 새벽 별빛이 비추고 있다.

고개를 갸우뚱하는 길송이...

insert) 서리가 내린 밭길을 걷는 두 사람...

고목나무가 귀환을 반기듯이 가지들을 흔든다. 저 멀리서 스님1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고...

알랭 ...저기, 길송아.

길송 (뚱하다) 네에. 대체 몇 번째나 부르는 거예요?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잖아유.

알랭 ...그래, 미안하다. 게다가 더 미안한 건, 사실은... 난...!

길송 뭐유? 저 데려갈 맘 없다구유?

알랭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들어봐. (큰 맘 먹고) 나는...

플래쉬백) 책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서 돋보기로 고서적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알랭의 모습. 황-! 거칠게 열리는 문...

두목 제발 돈 좀 갚아!

프랑스도굴꾼 일행이 알랭을 한심한 듯 내려다보고 있다.

voice over 스님1 여서 뭇들 허?

플래쉬백 속의 알랭이 툭- 돋보기를 떨어뜨린다! / cut.

72. 마을입구 / 밤

양상한 가지들이 뻗어있는 고목나무에 다섯 개의 등이 달려있다. 환한 등임에도, 초상 집에 걸린 등처럼 처연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서바나인 무리가 마을입구로 들어서자, 대나무 사다리를 타고 있는 스님1이 고목나무에 달아놓은 등 하나를 떼낸다. 화면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오는 등... 등을 감싼 종이에 활자가 찍혀있다.

네 개의 등만 달린 고목나무...

영국인들이 저들끼리 킬킬거리며 마을입구에서 걸어 나오자, 스님1은 한 개의 등을 떼서 스님2에게 건네는데... 아무 표정도 없이, 스님2가 등을 받아든다.

고목나무에 걸린 등이 세 개로... 두 개로... 줄어든다.

73. 최창득의 집 / 낮

새하얀 도포를 입고, 탕건을 쓴 의원이 눈을 지그시 감고 있다. 염소처럼 난 수염을 차분하게 쓰다듬는 의원의 하얀 손. 새끼손가락만 길게 손톱을 길렀다. 넓은 소매를 걷고는 누워있는 풍뎅이의 맥을 집는데...

풍뎅이, 앓아누워 있으면서도 저편에 앉아있는 길송이에게 눈짓으로 장난을 건다. 어른들 (큰스님, 스님1,2, 최창득, 알랭)의 무거운 표정들과 대조된다.

의원 ...잘 쓰면 약이고, 과하면 독이고.

알랭 아편이... 맞습니까?

의원, 양인이 말하는 것을 처음 봤다는 듯 혁- 놀라서 알랭을 한참 쳐다보다가... 다시 점잖은 체...

의원 얼마 전, 청주 일대에 괴질이 돌았는데 용케, 양귀비덕에 살았구먼.

플래쉬백)

#마을 우물에 아편을 푸는 풍뎡이의 모습. 장난스럽게 혼자 킁킁거리며...

풍뎡 혼자만 좋은 거 먹을 순 없지, 암!

아편가루가 우물물에 떨어진다. 갈색의 가루들이 내려와 물 속에 잠긴다... /cut

마루에 앉아 큰 눈을 떼굴거리고 있는 현이. 눈 밑이 쾅하다.

아낙1 현이, 물이라도 좀 마실려?

현이 아녀유. 설사만 계속 해서... 뭐 입에 대기 무서워유.

아낙1 에이그... 고생한다.

힘없이 웃는 현이... / cut

/

의원 설사를 멈추게 하는 효능도 있거든.

방 구석에 앉아있던 돈할매, 입을 오물거리며 말한다.

돈할매 거봐, 산삼이라니깐.

돈할매의 입안에 있는 걸 자신의 손에 튜- 빨게 하는 최창득.

손에 올려진... 침 범벅이 된 생아편을 허망하게 바라본다.

74. 산사 / 밤

insert) 탕약기에 올려둔 풍뎡이의 약이 달여지고... 넓적한 그릇에 까만 한약이 쏟아진다.

길송 (풍뎡이에게 들이밀며) 얼른 마셔.

고개를 가로짓는 풍덩이.

풍덩이 안 마셔, 쓰단 말여!
길송 약 아녀, 커피여-

은근하게 달래는 길송의 말에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약을 받아서, 혀를 쭉- 대보는 풍덩이.

풍덩이 망할, 뽕쟁이 같으니라고. 이런, 쌍 것이...!

돈할매를 따라하는 풍덩이 때문에, 까르륵- 길송이는 숨이 넘어가도록 웃는다.

75. 프랑스 주한대리공사관저 / 밤

직지 상권이 비춰진다. 상권의 책등에 닿는 만년필이 그 밑에 포개어있는 하권으로 내려간다. 만년필의 움직임에 따라 화면도 점점 아래로...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만년필! 직지 하권 밑에는 똑같이 생긴 직지 상권이 있다! 손가락이 따라간 책등은 모두 10권... 직지 다섯 쌍 모두가 한 곳에 쌓여져 있다.

직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뽕랑시의 눈동자...!

#플래쉬백)

책이 가득한 중국의 고서적거리... 허름한 가게 안에 뽕랑시와 여송이가 쪼그려 앉아 고서를 보고 있다.

뽕랑시 이것 좀 봐... 어떻게 이 시대에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지? 금속활자라니.

여송이, 책의 맨 뒤를 펼쳐서 책이 출판 된 년도를 살핀다.

여송 에이, 1500년대인데?

뽕랑시 1500년이면 구텐베르크보다 100년 밖에 뒤지지 않아. 구텐베르크 알아? 여송?

여송 우리 마을엔 1300년대에 만든 것도 있는데 뭐.

뽕랑시 뭐? 거짓말 치지 마.

여송 진짜야. 어릴 때였지만 내가 분명히 봤다구...

뽕랑시 그 연도가 맞다면... 서양의 인쇄술보다 먼저란 말이야.

여송 (대수롭지 않게) 응, 그렇겠지.

빨랑시 ... 동양에 그런 게 있다고? 말도 안 돼... /cut.

/ voice over 빨랑시 어쩔 이리 사기를 잘 치는지.

빨랑시의 책상 옆에 서있는 화려한 색깔의 치파오를 입은 여송이의 모습. 청초했던 얼굴은 온 데 간 데 없고 여기저기 멍자국이 배어있다.

책상 앞에 나란히 도열해 서있는 양인들. 긴장한 듯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차렷 자세로 서있다. 모두 배곶이마을에 들렀던 양인들이다!

스페인인 우리가 제일 높은 가격이라 넘기는 거라 했습죠. 당연히 우리만 구했을 거라고...

미간이 찌푸려지는 빨랑시를 보며, 더욱 긴장하는 양인들. 서로를 쳐다보며 ‘뭐 이런 재수 없는 경우가 다 있나...’하는 표정들이다.

빨랑시가 책상 서랍에서 커터칼을 꺼내자... 더욱 숨을 죽이고!!

프랑스인1이 불현듯 무엇인가 생각이 난 듯 말을 꺼낸다.

프랑스인1 저기, 제 친구 놈이 말입니다. 예전에 그 곳에 갔었는데...

제일 위에 있는 직지 한권을 집어드는 빨랑시.

voice over프랑스인1 그런데 한 놈이 배신하는 바람에 모두 관아에 끌려가 거의 죽을 뻔한 일이 있었지요.

책 사이에 커터칼을 밀어넣는다.

voice over프랑스인1 그 중 한 놈이 아직도 그 마을에 남아있는 걸, 어제 제가 봤습니다요. 서..선교사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빨랑시, 책의 매듭부분을 잘라내는데, 너무 쉽게 끊어진다.

빨랑시 그래?

빨랑시, 책을 툭- 책상에 던진다. 웬지 모를 공포감을 느끼는 양인들...

76. 산길 / 낮

insert) 눈이 얇게 뒤덮여 있는 산...

짚신발이 힘차게 땅을 내딛는다.

험한 산세를 씩씩하게 넘는 옹기장수. 한참을 걷다 문득 생각났는지 뒤를 쳐다 보면, 따라오던 프랑스인1의 볼이 발짱게 달아올라있다. 쭈욱- 눈에 미끌어지는 구두 때문에 몸을 가누기도 힘든 프랑스인1.

옹기장수, 손으로 ‘오케이?’싸인을 만들어 보이자, 프랑스인1... 기력을 쥐어짜 끄덕끄덕 - 고개로 답한다.

77. 곳간 안 / 낮

insert) 곳간 밖의 모습.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구두. 마을곳간 밖에 프랑스인1이 추위에 오들오들 떨며 서있다. 옆에는 옹기장수의 지게가 프랑스인1처럼 처량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

빼걱- 슬며시 열리는 곳간문! 김이 올라오는 죽통을 불쑥 내미는 순식이!

순식 줍이유. /

/ 곳간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 짚신을 이고 있는 사람들... 헐랭이 옆에 옹기장수가 쪼그려 앉아있다.

옹기장수 야, 그래서 여까지 데리고 온 거 아녀. 난 여기 불일도 없는데...

헐랭이 (똥-) 그래서유?

옹기장수 아니.. (둘러보며) 뭐 살 건 없냐구...

헐랭이 저 양인, 우리 손님 아니니께 저기 산사 가서 사달라고 하셔유...

옹기장수 에이, 뭐 언제 그런 거 따로 따졌나? 거기 손님이 여기 손님이고 그런거지.

헐랭이 ...이제 따로 할 겁니다.

‘네 맘 다 안다’는 옹기장수의 표정, 돌맹이에게 은근하게 묻는다.

옹기장수 싸웠구먼?

헐랭이 싸우긴 뭘 싸워요...

옹기장수 ...에이, 빠졌는데 뭘.

헐랭이 안 빠졌어유. 그냥... 우리 따돌리고 자기들끼리만 먹고 살겠다는데 그러라

하라죠, 뭐.

피식- 웃는 옹기장수... 여전히 뚱한 표정으로 묵묵히 짚신을 이는 혈랭이.

옹기장수 에이, 스님들이 설마 정말로 그랬을까.

혈랭이 (발끈하며) 참이여요. 글고 무신 저것들도 (멈칫)...스님이라고...

옹기장수 야, 그렇게 말하지 말어. 가가, 아니 혜경스님이 좀 말은 썰게 해도 완전 순한 놈이랑게. (아련하게..) 모진 놈이었어봐... 어디 장사하다 말아먹나... 사람은 참 착혀.

짚신 삼던 손을 멈추는 혈랭이... 눈빛이 흔들리며 얼굴에 갈등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옹기장수 (툭 치며) 그러니깐 맘 풀으라고. 나 올라간다?

손을 털며 일어서는 옹기장수.

voice over 혈랭이 가서유~

insert) 곳간의 나무 창살 사이로 보이는 옹기장수와 프랑스인1의 뒷모습.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짚신이던 사람들...

혈랭이 지들끼리 꿩꿩이면 우리도 꿩꿩이 할 줄 안다는 걸 보여주자고. 지들은 책 팔아먹고, 우리는 짚신이나 이라는 거여, 뭐여?

혈랭이가... 고민스러운 표정으로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지켜본다.

프랑스인1의 손에 들려있는 가방을 보곤 변하는 혈랭이의 눈빛!

불안해하는 순식이... 걸어가던 양인이 고개를 돌려, 곳간을 보면, 순식기와 눈이 딱 마주친다.

화들짝 놀라는 순식이!

78. 산사 _ 큰스님 처소 / 낮

스님2가 큰스님의 책상 위에 계약서를 올려놓는다.

스님2 저...값은 부르는 대로 주겠다고... 아직 안 팔았으면 줬으면 한답니다.

큰스님 ... 저번에 다 팔았지 않는가.

스님2 아! 그렇긴 한데... 봄까지 또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모르고...

스님2의 애매한 설득에, 스님1이 단호하게 말한다.

스님1 필요한 만큼 거두었으면 얼른 손을 털어야해. (큰스님을 보며) 이건 진짜 안 되유.

스님2 선금으로 원하는 돈을 얼마든지 줄 테이니 이 달 안으로만 달라고...

스님1이 펄쩍 뛴다.

스님1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런다? 선금 준다는 놈 치고 제대로 된 장사치 못 봤네.

스님2의 사람 좋은 웃음이 사라진다.

길송이, 스님들의 언쟁에 바짝 얼어붙어 눈치만 살핀다.

큰스님, 평소에 말을 안해서인지 쉿소리가 나는 목소리로 진지하게 말한다.

큰스님 ...그러... 더 이상은 안 되지... 땀 흘려 일해야 할 때가 오고 있어. /

/ voice over 지들은 일도 안하면서.

insert) 큰스님 처소 벽에 바짝 귀를 대고 있는 돌맹이가 낮게 읊조린다.

돌맹이 더 잘 살고 싶은 게 죄는 아니잖여.

79. 산사_ 공양간 / 낮

활활 타오르는 아궁이의 불길...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그 불길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스님2...

품속에 있던 계약서를 꺼낸다.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아궁이에 넣으려 하는 순간!
공양간 문 앞에 우뚝 선 돌맹이!!!

돌맹 잠깐만유! ...우리랑도 상의해야쥬.

아궁이의 불이 타닥타닥 타들어간다.

80. 돌맹이네 / 낮

잘 보이려 가식적으로 웃는 웃음들... 순식이만이 뚱하게 앉아있다.

스님2, 뽀죌한 듯이 돌맹이네 방안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나란히 걸린 갈모를 보고 있는데...

서로 옆구리를 툭툭-치는 돌맹이와 혈랭이.

혈랭이 그려유. 항상 곳곳하게 살아오신 분헌테 이런 부탁을 드리기도 그렇지만... 그... 민...음... (옆을 돌아보면)

돌맹처 민생!

혈랭이 민생을 진심으로 살피시는 분은 혜관스님이라 생각해서...

미묘하게 변하는 스님2의 표정... 입꼬리가 살짝 올라갈 듯 말듯 하다.

혈랭이 (자기 감정에 빠져들며) 저흰 항상 불안한 맘으로 살았슈. 언제나 밥이나 먹 어볼런가... 그리고 어머니도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눈물까지 고이는데)

돌맹처 (말을 가로채며, 단호하게) 스님도 뜻을 펼치셔야쥬.

스님2, 놀란 듯 돌맹처를 쳐다보고! 돌맹처, 스님2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듯 눈을 똑바로 쳐다본다.

돌맹처 언제까지 스님들이 허란대로만 하고 살거유. /

돌맹처의 눈빛을 회피하는 스님2...

돌맹처 (달래듯) 우린 다... 스님 편이구만유.

돌맹처의 부드러운 말에 고개를 드는 스님2, 만족스러운 미소가 입가에 번진다.

81. 산사 마당 / 낮

마당에 옹기종기 물려있는 사람들... 전과는 다르게 옷도, 얼굴도 깔끔해졌다. 서로 칭찬을 해주기도 하고...

어디선가 돌맹이가 통나무 의자를 갖고 오자, 너도 나도 의자에 앉으려 한다.

insert_ 큰스님처소

큰스님 무릎을 베고 풍뎡이가 자고 있다. /

/곳곳하게 통나무 의자에 앉아있는 돈할매의 모습.

곱게 빗은 머리를 다시 한 번 스윙- 쓰다듬는다.

/ 스님2를 찾는 스님1의 모습... 어느 곳에도 스님2가 없다.

/알랭의 방이 보이는 맞은 편 마당에서 초조한 듯 손톱을 뜯는 스님2.

알랭이 방에서 나오자, 스님2가 주위를 살펴보고 알랭의 방으로 켜 걸음으로 걸어간다.

#플래쉬백)

바닥에 놓인 계약서... 붓을 들고 있는 스님2가 걱정에 어려있다.

스님2 ...스님들이 도와주시지 않을 겁니다.

돌맹처 (은근하게) 안 도와줘도 되유. 파본 남은 거 지들도 알거든요./

/ 스님2가 알랭의 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본 길송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알랭의 방으로 다가간다.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걸어가던 알랭이, 빈 손을 보더니 어이없다는 듯 웃는다.

성경책을 가지러 다시 방으로 향하는 알랭...

드르륵- 열리는 문!!! 스님2가 기겁을 해서 방문을 쳐다보면...!

길송 ...스님, 여서 뭐 허유?

스님2 ... (말없이 길송이를 보다가, 할 수 없다는 듯) ...파본을 급하게 찾아오시라 해서.

길송 다 버렸잖아유.

스님2 ...분명 버리진 않았을 거여.

(길송이의 시점) 스님2의 이마에서 흐르는 땀...알랭의 방안에 널브러져 있는 커피콩... 붓과 종이들... 알랭의 옷가지들...

insert_ 모두 통나무 의자에 앉고는 흡족해 하는 사람들의 모습

sound over “그만허유!!!” 길송이의 외침!

스님1, 알랭의 방 쪽으로 걸음을 돌린다.

82. 알랭의 방 앞 / 낮

insert) 산사 마루에 기어가는 도마뱀. 마루의 색깔처럼 고동색이다.

알랭의 방 안에서 밖을 내려다보는 스님2의 눈에 광기에 어려 있다. 알랭이 스님2를 진정시키려는데....

알랭 지금 벌여놓은 정도면 병도 다 고치고... 겨우내 먹고 살 수 있어요.

길송이의 비명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 둘... 알랭의 방 앞으로 모여든다.
스님2의 모습을 보자 싸해지는 마을사람들의 얼굴...
사람들의 반응을 살피고는 더욱 도전적으로 알랭의 바로 앞에 서는 스님2!

스님2 허, 이 양반. 대우해줬더니만 계속 가르치려드네.

동의를 구하는 듯 마을사람들을 보는 스님2. ...사람들은 외면하고...
큰스님도 풍뎡이를 안고 도착했다.

스님1 (스님2에게 다가가며) 자네, 이게 무슨 짓이야?

스님1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알랭을 보며 비꼬듯 말을 이어가는데...

스님2 쉽게 돈 버는 방법 가르쳐 놓은 양반이 누군데 이제 와서 이래라...
알랭 (다급하게, 말을 끊으며 대꾸한다) 그런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지금까지의 자상한 표정과는 다르게 눈빛에 광기가 일어나는 스님2!!!
화를 억누르며 알랭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짓는다.

스님2 ...저기, 제발 내 말 좀 끊지 말라구!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듯이 놀란 돌맹이...

돌맹이 스님...그만 하세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스님2, 지그시 어금니를 깨물며...돌맹이를 바라본다.

스님2 순진하게 아직도 이자가 선교사님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여?

알랭을 바라보며 슬며시 미소를 짓는 스님2!
알랭은 새파랗게 질려서 굳어있다!!!

플래쉬백(과거회상)

길송이와 알랭의 뒷모습... 붓짐을 매고 있다. 둘에게 다가서는 스님1.

스님1 (짜늘하게) 길송이, 넌 들어가서 혜관스님 공양준비 좀 도와드려라.

꾸벅- 인사를 한 길송이가 멀어지자, 알랭을 기가 막힌 듯 바라보는 스님1.
당황하는 알랭이 뭔가 변명거리를 말하려는 듯 입을 움찔거리는데...

스님1 역시... 가짜였어. ... 하긴 진짜 의원이라면... 환자의 손길에 그렇게 놀라지도
않겠지.

플래쉬백) 돈할매의 손에 화들짝 놀라는 알랭.

스님1 아편중독이라는 것도 척 보면 알았을테고...

##플래쉬백) 큰스님에게 풍뎡이의 봉투를 가져오는 알랭의 모습.

스님1 게다가...고서적을 그렇게 잘 보는 자가... 이 마을에 들어왔다면... 딱 한 가지
이유이겠지!

알랭의 가슴팍을 툭툭- 치는 스님1!

둔탁한 소리가 난다.

스님1이 알랭의 옷소에서 강압적으로 '직지' 진본을 꺼내고... 하얗게 질린 알랭은 반항
도 못하고 굳어있다...!

스님1 내일 날 밝으면, 짐 챙겨서 떠나시게.

알랭 ...! 풍뎡이와 할마님 나올 때까지만...

스님1, 차갑고 예리하게 알랭의 눈빛을 살핀다.

알랭 낯은 것만 보고 바로 떠나겠습니다.

스님1 (끄덕이며) 마을 사람들이 알아선 절대 안 돼. ...이제야 갓 살아나기 시작했

어.

직지를 들고 알랭 곁을 떠나는 스님1.

알랭의 허망한 모습 뒤로, 물지게를 진 스님2가 화면에 잡힌다. /

/ 길송... 알랭을 올려다본다...

길송 진짜 ...가짜유?

최창득의 허망한 표정. 돈할매의 어깨를 감싸 권 손이 힘없이 미끄러진다.

83. 알랭의 방 안 / 오후

난장판이 된 알랭의 방 안...

알랭이 방을 돌아다니며 바닥에 흩어진 옷가지와 서적들을 자신의 가방에 주워 담는다.

문 밖에서 소리가 들려온다.

v.o돈할매 호로자식들. 먹여주고 가르쳐준 선상님한테 뭐하는 짓들이냐?

v.o돌맹 할매, 그냥 들어가 주무셔요.

v.o돈할매 누가 할매냐!! 배워먹지 못한 놈...

짐을 싸는 알랭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다.

v.o 스님2 사기꾼입니다. 지금은 이 마을 사업에 사사건건 반대하는 척하다가... 언젠간 가장 돈 되는 걸 가지고 도망갈 사람이라구요!

insert) 어떨떨한 마을 사람들의 표정... 스님2가 돌맹이에게 눈짓을 주자... “맞는 말이구먼!” 맞장구를 친다. 덩달아 마을 사람들도 ‘그런가보다...’ 고개를 끄덕이고... /

/ 가방 하나에 짐을 다 싣는 알랭... 커피콩이 담긴 봉투를 방 구석에 가만히 놓아둔다.

84. 마을입구 / 오후

insert) 고목나무에 걸린 등 하나... 이슬을 맞았는지, 등을 감싸 놓은 한지가 풀어져 가지 여기저기에 흠뻑스럽게 붙어있다.

알랭이 돈할매에게 절을 올리는 모습이 멀리서 비춰진다.

알랭 약 잘 챙겨드셔야 해요...

돈할매 몰러! 에라이, 도깨비놈.

마을입구까지 애잔한 마음에 따라 나왔지만... 무슨 말을 해야할 지 몰라 쭈뼛거리는 마을 사람들...

순식이가 결심한 듯 성큼성큼 알랭에게 걸어가, 고구마와 감자 찢 것을 불쑥 넣고는 되돌아온다.

순식이를 찢어보는 스님2...

사람들 무리에서 빗겨서 있는 최창득은... 알랭의 시선을 외면한다.

알랭을 애뜻하게 바라보는 큰스님.

큰스님 (목이 매어, 또 췌소리) 잘 가시게.

스님1은 조용히 합장을 한다.

스님2의 눈치를 보다가 통명스럽게 말을 내뱉는 혈랭이...

혈랭이 에잇, 다신 오지 마슈.

혈랭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순식이와 순식처 ...돌맹처까지 모두 고개를 떨구고, 차마 알랭의 가는 모습을 보지 못한다.

고목나무에서 점점 멀어지는 알랭...

(알랭의 시점) 죽 늘어선 마을 사람들의 모습... 길송이를 찾지만, 길송이의 모습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85. 마을곳간 / 낮

insert) 썩아- 하고 시원하게 부어지는 빗소리. 비가 오는데도... 달팽이가 집 속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

(위에서 마을 곳간을 내려다 본 화면)

테이블처럼 쌓아놓은 짚단 위에 까만 007가방이 놓여있다. 매우 이질적인 분위기....

원탁회의처럼 동그랗게 앉아있는 마을사람들. 그저 007가방을 바라만 보고 있다.

침묵을 깨고 순식이가 한숨을 쉬 듯 말한다.

순식 돌맹아... 넌 이 돈 가지고 뭐할 겨?

조그마한 소리지만... 곳간에 소리가 울리고...
죄책감에 어린 눈망울들로 모두 순식이를 쳐다본다.

돌맹 ...돈이 있었음 했지... 이걸로 뭐 할지는 생각을 못했네.

손에 쥔 몇 냥을 바라보는 돌맹이.

insert) 창밖으로 빗줄기가 썩아- 하고 쏟아져 내려... 산사로 올라가는 길이 보이지 않는다.

86. 산사_ 인쇄소 / 오후

인쇄도구들이 널브러진 인쇄소에서 홀로 정리를 하고 있는 스님1.
바닥에 떨어진 파지들을 줍고, 활자판을 다시 제자리에 가져다놓고 돌아왔는데!

작업책상 위에 놓인 묵직한 주머니 하나!

스님2 다시 한 번만 합시다.

스님1 ...왜?

스님2 ...?

스님1의 반응이 의아한 듯... 책상에 놓인 주머니를 가만히 보는 스님2.

스님2 돈 때문엔 안 해.

스님2를 외면한 채, 스님1은 인쇄소 바닥을 쓴다.
굳은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던 스님2, 돈주머니를 다시 확 낚아채고는 인쇄소에서 나가
고...

스님1 역시... 사람이 변하긴 어렵구만.

스님2가 나간 길을 잠시 바라보는 스님1... 다시 빗질을 한다.

87. 순식이네 마당 / 낮

마당을 지르는 빨래줄... 기다린 장대에 짚으로 엮은 줄을 늘어놓았다.
줄 위에 나란히 걸려있는 하얀 적삼. 빨래를 널고 있는 순식처의 손이 빨갱게 얼었다.

적삼을 빨랫줄에 널다말고... 동작을 멈추는 순식처...
코를 벌름거리는데... 급박하기도 하고, 코믹하기도 한 모습으로 미처 넣지 못한 적삼을
손에 꼭 쥐 채... 홀린 듯 걸어간다.
쿵쿵거리면서도 점점 빨라지는 발걸음... 옅은 미소가 번져나가고...
우뚝 멈춰선 순식처의 발걸음. 최창득 네 담장 앞이다.

(순식처의 시점) 돈할매가 마루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 고고하게 대접에 담긴 커피
한 모금을 마신다.

실망한 순식처의 표정. 적삼을 든 손을 힘없이 떨군다.

88. 산속 어딘가 / 낮

insert) 배꼽이마을 뒷산의 모습... 고개 너머로 밥 짓는 흰 연기가 피어오른다.

굽이굽이 난 오솔길로 알랭이 걸어오고 있다.
좁은 길을 두고... 맞은편에서 오는 프랑스인 무리들과 마주쳤다.
알랭이 길을 터주고... 터벅터벅 걸어가는 알랭의 뒷모습이 비춰지는데...
커다란 붓짐을 매고 있다.

프랑스인 (프랑스어) 많이 사 가는데?

들뜬 프랑스인 무리들의 수다소리에 알랭이 뒤를 돌아본다.
서로를 치며 낄낄거리며 걸어가는 프랑스인들의 모습... 허리춤에 찬 권총이 눈에 들어
오고!

불길한 기운을 감지한 알랭, 걸음을 재촉한다.

89. 프랑스 대리공사관저_ 여송의 방 / 저녁

insert) 피처럼 붉게 노을이 번지는 하늘...

숨이불로 뽕뽕 싸놓은 청자와 연적... 갖가지 보석함들이 쌓여있다.
고서적들은 10권 정도씩 묶음지어 놓았다. 짐들로 꽉 들어찬 방 안....

등짐을 짊어진 여송이의 모습! 머리를 질끈 묶어 올렸다.

베개 속에 손을 넣는 여송이. 베개를 들어 털어보기도 하고...
...없다!!! 베개를 던지는 여송이.

흥미로운 광경을 구경한 듯 킁킁거리며 뿔랑시가 여송의 방안으로 들어온다.

뿔랑시 (금덩이를 손에 들곤) 이거 찾아?

운동화처럼 발에 꼭 맞게, 끈으로 단단히 묶은 비단신이 뿔랑시의 눈에 들어온다.
여송의 표정은 더욱 참담해지고...

뿔랑시 곧 한 개도 도착할거야. 그 즉시 프랑스로 가자구. (방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손짓) 모든 보물들과 함께.

뿔랑시의 웃음소리가 방안에 퍼져나간다.

90. 산사_ 공양간, 마당 / 새벽

insert) 산속의 까마귀들이 하늘을 향해 퍼져나간다.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산사 마당에 서있는 프랑스인 무리!
스님2, 쌀을 씻어 오다가 우뚝 멈춰 서고...!
스님2를 보곤 프랑스인1이 저들의 통역관인 조선인에게 귀엣말로 속삭인다.
겉에 질려 완전히 얼어있는 스님2!

스님2 아...아직 약속된 시간이 아니잖소!
조선인 그냥 넘겨주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시간이 필요해? (놀리듯) 뭘 만들어서
줘야하나?

깔깔거리고 웃는 무리들.
아직 잠이 안 깨서 눈을 겨우 뜬 길송이가 장작개비를 들고 공양간으로 가고 있다.

조선인 선금 받았으며. 그리고... 이 달 내로 온다고 했지, 이 달 말에 오겠다곤 안했

다는데?

스님2 그... 우리 마을에 있던 양인이 들고 갔소! 찾고 있던 중이니 한 주만...

고개를 장난스럽게 가우뚱하는 조선인...

조선인 양인이 들고 갔다, 그런데 여기서 찾고 있던 중이다? (피식) ...어여 찾으시게. 주긴 줘야지.

스님2 (얼이 빠져서) 잠..잠시만 기다리시오!

알랭의 방으로 미친 듯 뛰어가는 스님2의 몸에 부딪힌 길송이.
바닥에 장작개비들이 떨어져, 소리가 울린다.

그 소리에... 풍뎡이가 잠에서 깬다. 큰스님을 흔드는 풍뎡이.

insert) 처마에 맺혔던 물방울들이 인쇄소 구유에 똑-똑- 물이 떨어진다.
스님2가 씻어놓은 쌀알들이 흙바닥에 흩뿌려져 있다. 쌀알을 밟는 프랑스인1의 구둣발.

마당에 있던 길송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마당을 어슬렁거리는 무리들... 기다림이 무료한지... 마당귀통이에 가지런히 놓인 장독대로 향한다.

프랑스인1 대체 저 향아린 뭐야?
조선인 코리안 소스...

조선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길송이가 떨군 장작개비를 들고, 장독대를 쟁그랑 깨뜨리는 프랑스인1!
간장이 흘러 나오고... 냄새에 양인들이 얼굴을 찌푸리고... 빨리 좀 가져오라고 소리를 친다. 저들끼리의 장난이 재미난 듯 괴기스럽게 깔깔거리기 시작하고...

알랭의 처소 미친 듯이 뒤지는 스님2... 이불을 뜯어 솜을 다 빼내고 있는 스님2.
솜이 온 방에 날아다닌다.

쟁그랑- 장독이 깨지는 소리에, 스님1이 마당으로 나온다.

스님1 이놈들!!!!

장독대에서 스님1으로 방향을 트는 무리들... 스님1에게 성큼성큼 다가선다.

스님1의 배를 장작개비로 쿡쿡 찌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스님1이 무리들에게 덤비면!

프랑스인1, 훌쩍 몸을 빗겨 스님1이 마당에 나뒹굴게 만든다.

다시 벌떡 일어나... 프랑스인1에게 덤비는 스님1. 프랑스인1은 요리조리 비끼기만 할 뿐, 공격조차 하지 않고... 스님1은 농락당하듯 마당에 쓰러진다.

insert 마을로 뛰어가는 길송이의 다급한 걸음!!!

/순식이가 베개 속에 넣어뒀던 돈주머니를 꺼낸다.

/돌맹이... 차마 못 놓는 돈주머니를 돌맹처가 뺏어들고!

/방안에 앉아있는 헐랭이... 스마일표시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주머니를 들고, 일어선다.

큰스님 방에 구두를 신은 채 들어가려는 양인!!!

작은 스님1이 필사적으로 막다가 결국 프랑스인1이 휘두른 장작개비에 맞고 쓰러진다.
산사 마당에 널브러진 스님1!

벌컥- 열리는 큰스님 처소의 문!!!

눈이 쾅한 풍뎅이를 안은 큰스님이 체념한 듯 눈을 지그시 감는다.

큰스님에게 양인이 점점 다가가는데!!!

voice over 순식 저기유~~!!!!

마당에서 들리는 소리에 양인이 바깥을 내다보면!

순식이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있다!!!

마당에 툭- 돈주머니를 던지는 순식이!!!

순식 자, 여기 있수.

양인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진다. 마당에 있던 조선인에게 고갯짓으로 신호를 보내
면...

피식- 웃는 조선인, 돈주머니를 엄지와 검지로 하찮다는 듯 들어올린다.

순식이 눈 앞에서 돈주머니를 흔드는 조선인!

조선인 누가 돈 달랬어?

툭- 돈주머니를 다시 산사 바닥으로 던지는 조선인.

영문을 모르겠는 마을 사람들... 어두운 방안에 앉아있는 큰스님을 이제 어떡하냐는 눈
빛으로 올려다본다. 괜찮다고 말하듯이 고개를 끄덕이는 큰스님...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떨군다.

조선인이 주섬주섬 자신의 속주머니를 뒤지더니, 계약서를 꺼내어 들이민다!
모두에게 보여주려는 듯 마당을 휘휘 돌며, 큰 소리로 외치는데...

조선인 직지를 달라고! 여기 써 놓은 거 말이야!!!!

조선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양인이 큰스님의 얼굴을 주먹으로 내리친다!

조선인 하나!!! (마을사람들을 닦아내듯 내몰며) 얼른 찾아들 오라고~~~

우물쭈물 그냥 멍하게 서있는 마을사람들...

큰스님의 멍살을 잡고 다시 한 번 얼굴을 후려치는 양인!!!!
풍뎡이는 큰 스님 품으로 파고들려고 하지만, 풍뎡이를 밀어내는 큰스님의 팔...

조선인 둘!!!! 아니 아직 이러고 서있음 어찌자는 거야?

머뭇거리며... 발을 움직이는 마을 사람들...
순식이만 우뚝 서있고 모두들 어딘가에 있을 '직지 파본'을 찾아 빠르게 움직인다.
순식에게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조선인!!!

조선인 셋!!! 너네 마을 스님 맞아죽겠다?

다시 한 번 큰스님을 치려고 휘두르는 팔... 큰스님이 털썩 쓰러진다.
풍뎡이 큰 스님을 보호하려는 듯 꼭 안고... 귀 죽은 듯이 가만히 있다!!!

어쩔 수 없다는 듯... 무겁게 발을 떼는 순식이.

빠르게 움직이며 산사를 뒤지는 마을사람들을 호뭇하게 바라보는 조선인!
'그렇지,그렇지!' 고개를 끄덕이고!

공양간을 뒤지는 순식처와 돌맹처... 술뚜껑을 열어보고, 그릇 하나 하나까지 다 뒤집어
본다.

voice over 조선인 넷!!! (퍽하고 맞는 소리..)

해우소 문을 여는 헐랭이...

voice over 조선인 다서엇!!! (퍽...)

작은스님1의 방을 뒤지는 돌맹이...

voice over 조선인 여서엇!!! (퍽...)

그리고 알랭의 방에서 뉘를 놓고 앉아있는 스님2...

알랭의 방문을 연 길송이를 보자, 정신이 나간 듯 실실 웃는다. 온 방에 숨이 날리고...

voice over 조선인 열!!! (퍽...)

공양간을 뒤지다가, 풍뎡이의 뒤주를 본 돌맹처.

삐걱- 문이 열리면... 돌맹처의 간절한 표정이 보이고!!

v.o 돌맹처 이거 아닌감?

직지 두 권을 손에 드는 돌맹처... /

/ 직지의 첫 장을 펴보는데.... 첫 장이 없다.

스님2 (혼잣말) ...파본이야.

눈에 광기가 돌며 고개를 끄덕이며 스님2. 웃는 것인지 우는 것인지 모를 표정으로, "살았어..살았다고..."를 반복한다.

큰 스님 처소에서부터 박수를 치며, 스님2에게 다가오는 조선인! 직지를 어서 넘기라는 듯 손을 내민다.

의기양양한 눈빛으로 직지를 넘기는 스님2!!

스님2 그럼 다 된 거지?

스님2, 바닥에 떨어진 돈주머니를 제 품에 쑤셔넣는다.

마당으로 하나 둘, 모여든 마을 사람들은 기력이 빠진 듯, 멍하다.
큰스님 방바닥에는 무리들의 발자국이 찍혀있고...
알랭이 설교를 하는 곳이었던, 마당에 놓아둔 돌들은 흐트러져 있다.
풍뎡이의 눈은 초점을 잃었다.

insert) 흔들리는 풀잎과 바람소리...

직지를 받아드는 조선인! 만족스럽게 웃다가, 무엇이 생각난 듯 주머니를 뒤져... 조그
마한 칼을 꺼낸다. 책등의 매듭에 칼을 갖다 대는 조선인!

insert)
해맑게 웃는 풍뎡이의 얼굴...

v.o 풍뎡이 그게 좀 새 거지유? 시간이 좀 돼야 진짜 종이뭉치 되는데... /

/ 끊어지지 않는 끈!
화면이 격하게 흔들리고...
충격은 먹은 듯 입을 벌리고 있는 스님2!!!!!!!!!!!!!!

조선인, 꼬덕이며 프랑스인1에게 직지를 건넨다.

화면이 중심축이 기울어져 있고...
스님2가 찬찬히 고개를 돌려 마당에 쓰러져있는 스님1을 보면...
스님1, 절망적인 눈빛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는데....

insert) 곧 뭐라도 쏟아질듯 꾸물꾸물한 날씨, 구름이 가득하다.

스님2!!! 분연히 일어나, 직지를 든 프랑스인1을 필사적으로 붙잡는다!
거의 매달려 다급하게 말을 하는데...

스님2 진짜를 주겠네. (길송이에게) 이걸 가짜라고 말해! 얼른!!!
길송 (겉을 먹고) 댓 이스 폴..

손을 가로 젓으며 웃는 조선인.

조선인 그냥... 우린 이 가짜면 됐네.

허망하게 웃는 큰스님... 이 사이사이에 빨간 피가 머금어져 있다.

(풍뎡이 시점) 뿌옇게 어린 화면... 계속 따라붙는 스님2.
산사 마당에서 사라져 간다.

모두가 허망하게 마당에 주저앉았는데...

돌맹처 혜관스님이 어련히 알아서 가지고 올거여...

다들 미심쩍은 눈치지만, 애써 믿으려 고개를 끄덕이고...
입이 안 떨어지는 듯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차마 못하는 사람들..

sound over) 빵-하는 총성 소리가 배곶이마을 뒷산을 울린다.

산사에 어두운 안개가 깔린다.

순식이 ...죄송혀유.

통통 부은 큰스님의 얼굴을 차마 보지 못하는 마을 사람들...

insert) 이 새벽의 소란을 관군1이 담벼락에 숨어 지켜보고 있다.

91. 산사 (풍뎡이 상상) / 낮

insert) 흐린 하늘이... 아예 잿빛으로 바뀌어 마치 수묵화의 농담濃淡처럼 보이기도 한다.

v.o 큰스님 문을 두드리는 세속 손님은 모름지기 거절하여...

큰스님의 한시 외는 소리에 맞춰 풍뎡이가 하늘에 글씨를 쓴다.
더듬더듬 한자씩 쓰는데...“扣門俗客直須磨(구문속객직수회)”
큰스님을 자랑스럽게 쳐다보는 풍뎡이. 큰스님이 머리를 쓰다듬어주자...
하늘 위 구름 위에 풍뎡이가 두둥실 타고 있다.

voice over 이 산집의 기이한 일을 알게 하지 말라...

구름위에 드러누워 손끝으로 하늘에 “莫使山家奇事知(막사산가기사지)”라고 쓰는 풍뎡

이.

잘못 쓴 글씨는 호호- 불어 지우고... 산사를 내려다보면...

마을 사람들이 깨진 장독대를 쓸고... 쌀을 주워 담는다.

voice over 큰스님 집 모퉁이 배꽃은 나무에 가득 피었는데... (행한 고목나무)

확- 산사 마당에 빨간 핏물이 버려진다. 큰 가마솥에 옷을 삶는 사람들... 나무주걱으로 뒤적거릴 때마다 흙물과 핏물이 빠져나오고...

92. 산사 / 오후

#플래쉬백(과거회상)

산사를 해매고 있는 스님1의 모습! 쫓기고 있다!!!

뒤를 돌아보면 스님을 쫓는건 프랑스인 무리가 아닌, 관군들!!!! /

voice over 이방 어쭈? 널 여기서 다 봐야?

나뭇가지로 머리를 긁으며 마당에 서 있는 이방!!!

처소에 누워있는 작은스님2를 내려다보며 씨익- 웃는다.

간신히 눈만 뜨고 누워있는 스님2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작은스님과 같이 방안에 있는 큰스님에게 간단히 목례를 하는 이방.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

이방 그 고려 때 만든 거 있잖여? 그걸 관아에서 관리하라는 명이야.

스님1 그건, 산사 사유재산이네만...

이방 가져오라는데 뭐 별 수 있나?

스님1의 표정이 굳어진다.

이방 요즘 양인들하고 결탁하고, 유물유적 내주는 마을단위의 도적떼가 기승을 해서 말여... 그거 아직 여기 있는 거 맞지?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침울하다.

스님1 ...아, 아직 여기 있어.

걸러들었다는 듯 싸늘하게 비웃으며...

이방 그런데 왜 못 줘? 양놈이 달라면 주고, 나랏님이 달라면 못 주겠다는거여, 뭐여

스님1,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데... 그 모습을 본 이방이 혀를 꼰꼰 찬다.

이방 내가 왜 여까지 왔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둔해 빠져가지고...쫓쫓

순식처... 청소하던 손을 멈추고... 공포에 몸을 떨다...

이방 읍내에 소문이 짝 났단 말여. 녀들이 책장사한다고.

겹에 질린 돌맹이... 제 품을 뒤적거린다.
슬금슬금 이방에게로 와서 돈을 쥐어주는 돌맹이.

이방 허, 요것 봐라? 보름 전 만 혀도, 여기서 사람시체가 실려 나가던 마을이었는데, 갑자기 매수할 돈은 어디서 생겼다냐. (큰스님에게) ...팔아 먹은겨?

당황하는 돌맹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돈을 치우는 이방... 순식처를 쳐다보곤 피식- 조소를 흘린다.

이방 여기 단체로 초상나게 생겼구먼. 살아도 천민촌으로 강등일거여.

씨익- 비열하게 한 쪽 입꼬리가 짹악 찢어지는 이방의 표정.

관군들과 우르르- 산사를 나가는 이방의 모습이 위에서 비춰지고... 관군1의 어깨를 툭 툭-치는 이방의 모습위로 풍뎡이의 삐뚤삐뚤한 한자가 쓰여진다.
“子規來叫月明時(자규래규월명시)”

voice over 큰스님 두견새는 달 밝을 때 와서 울부짖는다.

행한 마당... 마을사람 모두가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눈빛은 슬프지만, 한 곳으로 집중된 얼굴들은 섬뜩한 느낌을 자아낸다. F.O

93. 최창득의 집 / 오후

F.I 술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말간 순식처의 얼굴을 덮는다.
모락모락 김이 오르는 고봉밥.
각자의 앞에 밥이 놓여있건만, 아무도 손을 대지 않고 있다...

밥을 쳐다만 보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며 눈치를 보고 있는 옹기장수!
최창득이 다짐한 듯 수저를 들며...

최창득 들게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옹기장수가 우적우적- 밥을 입 안에 밀어 넣는다.

옹기장수 (입에 한가득, 우물우물) 왜들 안 먹어?

말이 없는 마을 사람들. 그저 자기 앞에 놓인 밥을 보고 있다.
옹기장수 혼자서 찹찹거리고 먹다가 멍쩍어졌는지, ... 천천히 먹는다.

혈랭이 평생 배고팠는데... 오늘은 어째 밥이 앞에 있는데... 한 개도 안 먹고 싶어유.

혈랭이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는 순식이... 동의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인다.
밥상에 나란히 놓인, 아직 들지도 않은 수저들.
옹기장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느꼈는지...

옹기장수 (아쉬운듯 수저를 놓으며) 그... 선교사 때문에 그러?

다들 무슨 소리가 하고... 옹기장수를 올려보면,

insert) 청주 관아 앞에 서있는 알랭의 모습, 등 뒤에 커다란 붓짐을 짊어지고 있다.

94. 산사로 가는 길 / 오후

성큼성큼 산길을 뛰어 올라가는 발...

voice over 옹기장수 곧 한양으로 압송 된다는디?

누군가 풀숲을 헤치며 뛰어가고 있다.

voice over 누군가 그게 뭘 소리여?

저 멀리 보이는 산사!!! 헉헉거리는 숨소리!

voice over 옹기장수 고서들을 팔아넘긴 게 자기라고 관아에 가서 자수했다는구먼.
근데 그게 진짜여?

절박한 표정의 순식이가 다급하게 뛰어올라가고 있다.

95. 최창득의 집 / 오후

돌맹처 덕분에 살았구먼.

차갑게 식은 밥위로 흐르는 싸해진 분위기.

순식처 그러도... 끝까지 우리 위해주려고 한 양반인데.
헐랭이 말릴 때 관뒀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유...

돌맹처를 탓하듯 쳐다보는 마을사람들.
‘왜 또 이래?’ 표정으로 사람들을 쳐다보는 돌맹이.

최창득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녀.

다들 죄책감을 느끼는 표정이지만, 최창득의 바른 말은 귀에 거슬린다는 듯 인상을 찌푸린다.

탁탁! 수저를 들었다 내려놓는 돌맹이.

돌맹 성님.. 바른 소리 좀 그만하쇼. 양반 팔아먹은 적이 언젠데 아직까지 도리 따지고 산대유...

최창득 ...아무리 무식해도 가르침을 받았으면 좀 들어먹는 게 있어야 할 것 아녀!

돌맹처 (다른 데를 보며) ...아직까지 무슨 양반행세여... 양반행세가!

최창득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

말없이 앉아있는 최창득. 분위기는 더욱 경직되어 가는데...

돈할매의 눈이 반짝인다. 낮은 음성으로... 빠르게 이야기를 한다.

돈할매 사람 파헤쳐 먹겠다고 하는 녀들에게 최소한의 엄치를 바란 게 잘못이지.

#플래쉬백) 번쩍- 흠속의 현이의 손.

모두가 경악하며 할매를 본다. 분명 아까까진 마루에 없었는데 마루에 정정하게 앉아있는 할매.

가장 숨기고 싶었던 과거가 드러난 듯... 서로의 시선을 회피한다.
그러다 순식처와 눈이 마주치고...

돈할매 글러먹은 년넌들 같으니. 아랫도리나 팔아먹고 살고... 말세여, 말세.

#플래쉬백) 이방이 갈대를 꺾고 노는 모습. 장부에서 환곡미 징수표시를 지운다.

분열적으로 눈이 굴러가는 돌맹이. 순식처 싸늘하게 입을 연다....

순식처 ...마님... 아니, 할매... 우리 아니었음 님의 귀한 며느님이 치러야했소. 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요.

돈할매 밥이 나온다는데 뭘 더 못 했을까... 쫓쫓. 도리도 없고... 엄치는 더더욱 없고...

돌아앉는 순식처. 돌맹처, 그 모습을 보곤 참을 수 없다는 듯 큰 소리를 낸다.

돌맹처 말 나온 김에 따져나 볼까? 지네만 살 것다고 동네 사람 죽어나가는데도 쌀 한 톨 안 내놓은 건 사람이 할 짓이었수?

플래쉬백) 대문을 두드리는 마을사람들. 지금처럼 고고하게 앉아서 담배를 피는 돈할매.

돌맹처 ...누군 속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소?

누군 죽어도 선산에 묻고, 누군 죽으면 거적데기에 둘둘 말아 개밥이나 되고..

최창득의 착잡한 표정.

돌맹처 누가... 다 보이게... 떡하니 선산에 묻으래유... 왜... 선산에 묻어...

눈물을 참는 돌맹처...

96. 마을입구 / 저녁

insert) 고목나무를 밑에서 올려다보니, 하늘의 별들이 나뭇잎 대신에 나뭇가지에 촘촘히 걸려있어, 별을 단 나무처럼 보인다.

풍뎡이와 손을 잡고 있는 길송이.

길송이 이제 또 안할 거 같아?

풍뎡이가 고개를 힘차게 끄덕거린다. 나무를 올려다보며 주문 외우듯 중얼거리는 풍뎡이...

풍뎡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다음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네 이웃에 대해 거짓증거 하지 말지니라. 맞지?

길송 그 사기꾼 말을 뭐 하러 외고 있어. ...쭙다, 이제 들어가자.

길송이, 말은 툭툭거리며 하지만 표정은 애달프다.

insert) 헉헉거리며 산사에 도착한 순식이. 큰스님 처소의 방문을 벌컥 열면!
순식이를 올려다보는 큰스님의 얼굴.

97. 마을 전경 / 밤

insert) 어디선가 보글보글 끓여지는 커피...

최창득의 집

주무시던 돈할매가 코를 벌렁거리신다.

돌맹이네

곤히 자고 있다가...문이 덜컹거리자... 두 부부 내외 모두 쿵쿵대며 냄새를 맡기에 여념이 없다.

순식이네

휘잉- 바람부는 소리가 들리고... 코를 골며 자고 있는 순식이 옆에, 눈을 뜨고 있는 순식처.

98. 산사 절벽 / 아침

insert) 밤새 눈이 내려 마을을 하얗게 뒤덮었다.

혼자 배굼이마을을 내려다보는 큰스님의 뒷모습. 아이러니하게도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있다.

제일 끝 장을 펴면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거 하지 말라.’라는 글귀가 보이고...
스님의 파립자락이 바람에 휘날린다.

99. 최창득의 집 / 아침

드르륵- 장을 여는 최창득의 모습.

voice over 뭐, 풍뎡이는 하늘에서 뚝 떨어졌수?

장에서 도포를 꺼낸다.

휘- 둘러서 한 번 입어보는데... 어색한 듯 다시 벗어놓는다.

100. 마을로 내려가는 길 / 아침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휘적휘적 걸어오는 큰스님. 풍뎡이가 뛰어와 큰스님의 손을 잡는다.

#insert) 술에서 감자와 고구마를 담은 손.

/집을 나서는 최창득의 모습

/큰스님과 마주쳤다! 우물쭈물하는 최창득...

큰스님 가는 곳이 같은 것 같은데... 같이 가시죠.

...풍뎡이 옆에 서는 최창득.

최창득 그동안 미안하게 댔습니다.

고개를 숙여 큰스님에게 사과를 하고... 큰스님도 손을 모아 합장을 한다.

#insert) 저 멀리서 뛰어오는 스님1.

스님1 스님, 갈 길이 멀어서... 이거라도 챙겨 가지죠.

고구마와 감자를 건네고. 풍뎡이에게 풍차모자를 씌워준다. 얼굴이 폭- 파문힌 풍뎡이!

#플래쉬백)

붓짐을 싣는 어린여자를 뒤에 데리고 돈할매(큰마님)가 산사를 찾아왔다.

최창득 voice over 그동안 뭐가 그렇게 두려웠는지.../cut.

/병거지모자를 쓰는 풍뎡이. 최창득을 보고 활짝 웃는다.

101. 돌맹네 집 / 아침

문구멍으로 바깥상황을 지켜보는 돌맹이의 모습. 엉덩이를 쪽 빼고 좁은 구멍으로 밖으로 보느라 정신이 없다.

돌맹처 어때? 다 갈 거 같어?

돌맹 일단 형님은 나왔어. 어? 마님도 나왔네?

isnert) 문구멍으로 보이는 돈할매, 마당을 가로질러 걸으신다.

돌맹 어찌지? 아... 정말...

돌맹처 순식이네 가면 가고...

isnert) 문구멍으로 보이는 순식이네 집, 쥐죽은 듯 조용하다.

102. 순식의 집 / 아침

문을 등지고 서있는 순식처. 단단히 빼진 얼굴...

순식처 혼자가유.

순식 그런 말 들으면 나도 속이 상하지... 그런데... 우리가 안가면... 저이들 또 싸울지도 모르잖여.

토라진 순식처를 얼르고 달래는 순식이...

103. 산사 / 아침

sound over 짹짹- 산새가 지저귀 소리가 들리고...

스님2 길송아... 난 잠깐 내려갔다 오려는데...

방안에 혼자 텅그러니 앉아있는 길송이. 대답이 없다.

104. 길가 / 아침

/ 길가로 툭- 튀어나온 돌맹이! ‘아이씨..’이런 표정...

그래도 돌맹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아, 돌맹처도 같이 팔려 나왔다.

돌을 보는 사람들 시선에 당황하는데...

돌맹 (뚱하게) 그...사람 된 도리 좀 해봅시다.

빨쭈한 지 고개를 돌려 순식네에게...

돌맹 야! 안가냐? ... 정도 없는 매정한 것 같으니라고...

insert) 소리를 들은 순식네. 아내에게 윙크를 한다.

순식 나오라잖여... 우릴 저렇게 찾는데...

105. 마을입구로 가는 길 / 아침

배꽃이마을 사람들의 여정에 순식네가 슬며시 낀다. 힐끔힐끔 뒤돌아보는 사람들...
다들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슬며시 돌맹의 옆자리로 가는 최창득.

최창득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네.

돌맹 ...저희도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었어유.

고개를 꾸벅 숙이는 돌맹이...

106. 산사_ 알랭의 방

혼자 방안에 남은 길송이. 방을 둘러보면...
(길송의 상상) 어느새 알랭이 방안에 앉아있다.
길송을 향해 씨익 웃는 알랭의 모습.

플래쉬백
순식이 선교사님은 어찌 우리말을 그렇게 잘해유?
알랭 길송이한테 배웠지요./

플래쉬백
머뭇거리는 알랭의 모습...

알랭 ...길송아, 할 말이 있는데... /

길송이가 눈을 비벼도 여전히 방안에 앉아있는 알랭...

알랭 (프랑스어) 넌 사랑받는 존재고, 마을에 꼭 필요한 존재야.

라고 말하곤 사라진다.
눈물이 차오르는 길송이...

insert) 하얀 눈밭위에 찍힌 조그만 발자국. 길송이가 마을사람들 무리를 향해 뛰어간다.

107. 마을 입구 / 아침

insert) 고목나무에 소복히 쌓인 눈... 그 위에 때 아닌 새싹이 돋아있다.
저편으로 마을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제 겨우 마을입구에 도착한 스님2를 제치고 뛰어가는 길송이...
스님2... 활기찬 길송이의 뒷모습을 보곤, 포근하게 미소를 짓는다.

고목나무 밑에 서있던 돈할매.. 스님2을 위아래로 훑더니...

돈할매 어디 감히...중놈이...!

새침하게 몸을 돌려, 옷깃을 여미고 머리를 단정히 하신다.

말은 그렇게 하셔도 돈할매의 두 볼은 발그레해진다.

스님2의 황당해하는 표정! 그 때, 스님2의 손을 잡는 한 사람... 스님1이다.
서로를 바라보며 편안한 미소를 짓는 두 사람.
스님1의 손을 잡고 절룩거리며 걸어가는 스님2의 뒷모습.
한 쪽 발목 아래가 없다.

F.O

108. 청주관아 / 오후

insert) 청주관아의 대문에서 짐을 한가득 안고 나오는 관군들... 수레에 실어놓는다.

관아에 도착한 마을사람들을 보자, 흠칫! 놀란 기색...!
그러더니 곧 앓는 소리를 시작하는 이방.

이방 중앙관제가 싹 개편됐어. 조금만 더 모았으면 살 수 있었는데... 젠장할, 하필
괴질이 돌게 뭐야.

황당한 마을 사람들의 표정!

이방 뭐? 그 사람? 여기 있는 형부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중역죄인들은 다 한성으로
갔거든? 거기로 갈래? 에이씨.. 이걸 왜 또 이렇게 안 짜져?

수레 가득 실어진 이방의 짐...
청주 관아 앞에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 순식처가 입을 연다.

순식처 이제... 어찌지유..?
돌맹처 뭐 어찌긴 어찌... 집에 가야지.

헐랭이와 돌맹이도 아쉬운 듯 마을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저한다.
꾸물거리던 하늘에서 눈이 날리기 시작하고...
순식이가 하늘을 바라본다.

순식 ...저기...나는...그런 세상이 있다고 한 말은 참말 같어유.

하늘을 향해 손바닥을 펼치는 최창득. 손 위로 눈송이가 내려앉았다가... 사르르 녹는다.

돌맹이는 정말 천국이 보이나 오만상을 찌푸리며, 하늘을 올려다보고...
(마을사람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화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을 맞이하듯이 마을사람들 모두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109. 한성 가는 길 / 밤

확- 하고 모닥불이 일고... 불꽃들이 하얀 눈발에 날아다닌다.
마을사람들이 모여 군불을 쬔고 있다. 불 속에서 나뭇가지로 푹 찍어서 꺼내는 감자며... 고구마...

순식이가 고구마를 꺼낸다. 쭈- 자기 부인에게 주려다가...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으니. 최창득에게 내밀었다가... 최창득이 “으흠-”하면서 받아 들려니....
아차, 싶었는지 큰스님에게 불쑥 내민다.

순식 아, 성님- 언제까지 양반행세여!

순식이의 농담에 모두 깔깔깔- 하고 해맑게 웃는다.
저마다 나뭇가지에 꽂힌 고구마와 감자를 들고 있다.
입 안 가득 물고,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모습들...

insert) 하얀 눈발 위에 동이 터온다.

새하얀 들녘과 길을... 마을 사람들은 계속해서 걷고 있다.
손과 발이 시려워 호호 불면서도...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를 띠고 있는 사람들...
큰스님과 손을 잡고 걷던 풍뎡이의 다른 한 쪽 손을 슬그머니 최창득이 와서 잡는다.
행복한 듯 활짝 웃는 풍뎡이가 뒤를 돌아보면...

(풍뎡이의 상상 씬)

온통 눈으로 뒤덮인 하얀 세상. 풍뎡이의 입에서 하얀 김이 나오고...
하얀 김 속에 어리는 얼굴, 현이다!

저 멀리서 돌맹이와 돌맹처가 길을 걷고 있고... 돌맹처의 손을 잡은 한 계집아이의 모습...
웃고 있는 순식처... 순식이가 안고 있는 아이와 함께 걷고 있다.

약간 힘겨워 보이지만 행복한 헐랭이! 등에 제 어미를 얹고 있다.

화면이 조금 더 넓어지면, 누런개와 검은 개도 쫄레쫄레 꼬리를 흔들며 따라오고 있다.

그 뒤로 함께 걸어오고 있는 배곶이마을 사람들...
모두 꿈 속을 걷는 듯 행복해 보인다.

insert) 함박눈이 펄펄 쏟아져내린다.

뚜벅- 마을사람들 앞에 멈춰선 누군가!

voice over 용기장수 아니, 안 그래도 내가 가려고 했는데...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용기장수의 말에... 사람들의 표정이 멍-하게 변하고...
피죄죄한 물골의 마을사람들이 우뚝 멈춰 선다. 손을 잡고 있던 망자亡者들도 하나, 둘 사라지고...

110. 한성 앞 성문 / 새벽

주위를 둘러보면 어느새 사람이 바글바글한 성문 앞이다.

voice over 용기장수 오늘 아침에 ...지방관아에서 압송된 양인들은 싸그리 참수당
했구먼.

길목을 막고선 마을사람들을 쳐다보고 가는 장사꾼들. 발걸음들이 빠르게 오가고...
모두들 한 번씩 마을사람들을 쳐다보거나.. 조소한다.
“촌것들이 여기까지 왜 왔대?”, “거지떼가 따로 없구먼...” 하는 웅성거림이 들려오고...

넋을 잃은 사람들의 허망한 얼굴...

순식 진짜여?

무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용기장수...
돌맹처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눈물! 돌맹이 놀라서 돌맹처를 쳐다보면, 어느새 제 눈에
서도 눈물이 난다.
고개를 떨구는 순식처...

순식차 어떡해유. 어떡한다.... 쫘 만 서둘렀어도...

마을 사람들... 이제야 눈물이 터져 나오듯... 성문 앞에서 서럽게 엉엉 운다.

“뭘 일 난 겨?” 성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구경거리가 된 마을사람들 주위로 사람들이 둥글게 진을 쳤다.

눈물을 닦던 길송이... ‘길송아!’란 희미한 소리에 고개를 내밀어 주위를 살핀다.
북적거리는 사람들 틈사이로 보이는... 노란머리...
바글대는 사람들 사이에서 혼자 유유히 성문 안으로 들어간다.
마치 만주에서 보았던 선교사처럼, 그리고 알랭처럼, 검은 양복과 한 쪽 팔에는 성경책을 든 뒷모습으로...

the end.

111. [에필로그] 마차 안

빠르게 달리는 마차 안... 조용히 차창 밖을 보며 앉아있던 여송이가 갑자기 창문에 바짝 붙는다.

insert) 멀어지는 마을 사람들의 광경... 그 속에 보이는 길송이.

여송이 길송아!!!!

불러보지만... 멀어져갈 뿐...

insert) 길송이가 소리를 들었는지 고개를 번쩍 들고 주위를 둘러보지만... 반대편 쪽을 하염없이 볼 뿐이다.

사람들 틈바구니를 헤치고 쭉- 나오는 풍뎅이의 모습./

/ 여송의 발 밑에 놓인 보자기! 보자기 틈으로 보이는 책 한권을 창 밖으로 집어 던진다.

한 권을 더 던지려는데... 여송이의 팔목을 강하게 붙잡는 손! 화를 참고 있는 빨랑시!

112. 길가 / 새벽

마차에서 갑자기 툭- 풍뎅이 앞에 떨어진 책...

풍뎡이, 책을 주워들더니 어디서 많이 본 것이라는 듯 씨익- 웃으며 툭툭 털어 품에 넣는다.

113. 자막

“직지는 고려우왕 7년(1377) 7월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찍어 널리 배포했다.
상하권 39장으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하권만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하권의 첫 장이 없어 38장만 존재한다.
... 상권은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voice over 돈할매 운 하나는 타고난 놈이여!

풍뎡이가 환하게 웃으며... 영화는 완전히 끝난다.